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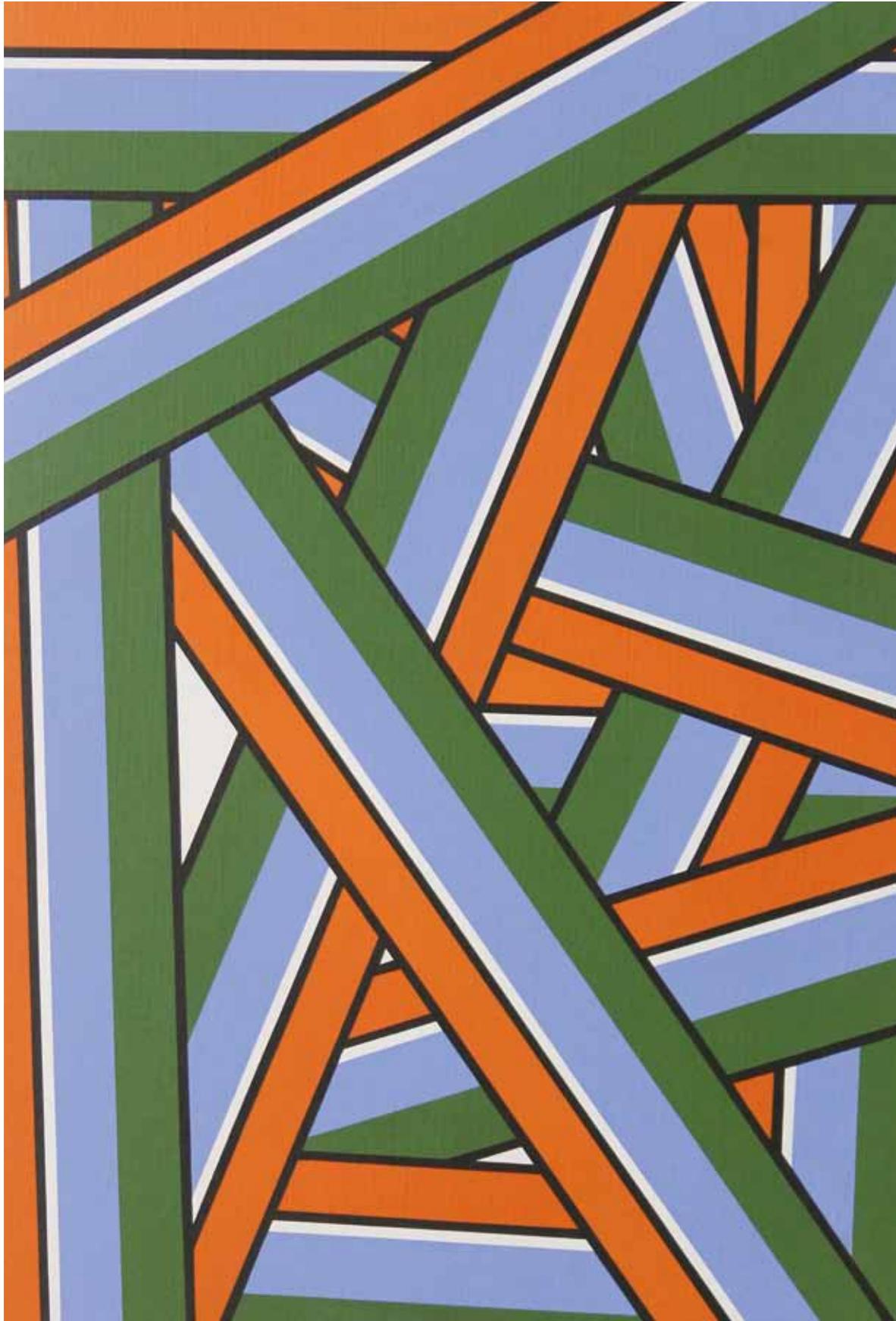
# mécénat

기업과 예술의 만남, 메세나 | 2019 SUMMER VOL. 107



+ THEME MECENAT

남<sup>남</sup>다른 메세나





티오피,  
세상의 열정을 깨우다

TURN  
ON  
PASSION

Maxim T.O.P.  
ESPRESSO



# 대한민국은 I am your Energy다

나보다 우리를 먼저 생각했고,  
내 가족보다 내 나라를 먼저 걱정했던 사람들  
100년 전 그들이 있어 오늘의 대한민국이 있고,  
대한민국이 있기에 100년 후의 우리가 있습니다.  
오직 대한의 독립 하나만 생각하고 희생하신  
그 고귀한 정신은 앞으로도 계속  
대한민국의 힘이 되어 이어질 것입니다.

세상 모든 것은, 누군가의 에너지다

I am  
your  
Energy



GS칼텍스는 대한민국 임시정부 100주년을 기념하여  
독립운동가 윤봉길, 김구, 윤동주, 한용운님의  
서체를 개발, 무료 배포하고 있습니다.

# CONTENTS

## 남<sup>남</sup>다른 메세나

### 테마기획

#### 칼럼 1

멋과 흥이  
춤추는 땅

#### 칼럼 2

자생력 강한  
문화예술의  
섬



#### 인터뷰

지역 특화  
메세나  
예술부흥의 동력!

김선희 우진문화재단 이사장



#### 인포그래픽

한눈에 살펴보는  
호남·제주  
메세나 지도



메세나 통권 107호

발행일 2019년 6월 10일

발행인 김영호

발행처 한국메세나협회

서울시 영등포구 은행로 37(여의도동 13-31)

기계산업진흥회 본관 6층

Tel. 02-761-3101~2

기획 한국메세나협회 경영기획팀

제작 디자인소호

가격 5,000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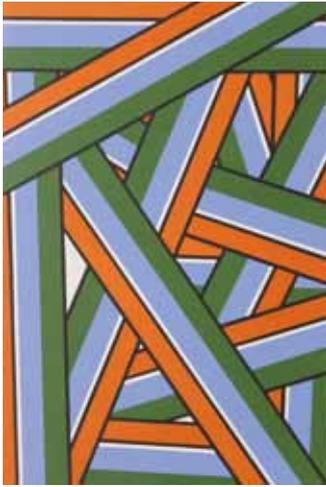
#### 홈페이지

한국메세나협회 [www.mecenat.or.kr](http://www.mecenat.or.kr)

기업과 예술의 만남 [www.aandb.or.kr](http://www.aandb.or.kr)

#### 페이스북

[www.facebook.com/mecenat.korea](https://www.facebook.com/mecenat.korea)



작품\_〈업히다〉 캔버스에 아크릴, 53x36cm, 2018년

작가는 도심 속 고건축의 단청 문양들이 지닌 각각의 개체들의 화려함과 조형적 배열 속에서 독특한 패턴을 찾아내 이를 새롭게 조합하는 작업을 한다. 이에 따라 새롭게 구축된 형태들의 반복은 전통적인 문양과 현대적인 디자인 요소가 결합된 구조물로 완성된다. 이를 위해 작가는 주변을 둘러싸고 있는 사물, 건축물, 행동 등을 세심하게 관찰한다. 작품 속에는 다양한 색채와 더불어 기하학적 선들, 때로는 유기적인 문양들이 등장하는데 이들 사이의 규칙과 배열로 인해 공간감이 드러나면서 새로운 형태의 구조물이 탄생하게 된다. 작가는 이처럼 조형요소들 사이의 완벽한 균형을 찾는 과정이 곧 자신의 삶의 균형을 찾아가는 과정이라고 말한다.

작가 김아라

경기대학교 환경조각학과 학사와 동대학 석·박사를 졸업한 작가는 한국의 문양과 색감에서 영감을 얻는다. 〈2018 조형적 균형(매혹창작스튜디오 전시실, 수원)〉, 〈2016 집합(대안공간 눈, 수원)〉, 〈2015 집합(종로도시갤러리 아트윈도우, 서울)〉 등 개인전을 열었고, 2019 수원미술전시관 기획전 〈헬로우 팝티〉, 2018 신진작가 발굴전 〈NEW FOUND〉, 제3회 뉴 드로잉 프로젝트, 2017 again 천변아트페어 등 단체전에 참여한 바 있다.

계간 〈메세나〉는 신진 예술가를 널리 알리고 현대미술에 대한 독자의 이해를 돕고자 신진 미술 작가의 작품을 표지에 지속적으로 소개합니다.

메세나 포커스

문화 CSR

함께하는 메세나

- 16 **메세나 스토리**  
문화예술의 숨은 뮤즈  
오페라하우스
- 20 **만나고 싶었습니다**  
삶의 품격 갖든  
도심 속  
문화 아지트  
로알라운지 김세영 대표
- 24 **해외는 지금**  
유물 후원과 메세나  
노트르담 성당 화재 복원에 대한  
프랑스 기업의 대응과 쟁점
- 28 **메세나 갤러리**  
제임스 진, 끝없는 여정  
롯데뮤지엄
- 32 **핫 이슈**  
비주류=다양성!  
신인 창작자의 가능성  
CJ문화재단 신인 창작자 지원사업 이야기

- 36 **메세나 가까이 보기**  
플랫(b) 십대의  
희망 올림(#) 노래  
CJ문화재단 'CJ튜업음악교실'
- 피노키오가 전하는  
무대 위 세계  
LG연암문화재단 'LG 꿈꾸는 프로듀서'
- 열정의 드림, 꿈 담는 그림!  
한성자동차 드림그림  
'2019 서울리빙디자인페어' 참여
- 지역 곳곳 꽃피는 예술교육  
한화예술더하기 '교구·교안 공모전'
- 병동에서, 일터에서 즐기는  
아름다운 음악  
종근당, 오페라 희망이야기 '오페라&콘서트'

- 47 **회원사 뉴스**
- 52 **협회 소식**
- 54 **문화 캘린더**
- 56 **회원사 소개**



- 42 **기업-예술 파트너십**  
지금, 우리 시대의 아티스트를 만나다  
종근당홀딩스 '종근당 예술지상 2019' &  
〈종근당 예술지상 역대 선정작가전〉  
한여름 청정고원 위 클래식 축제  
대원문화재단 & 평창대관령음악제  
아트페어를 넘어  
아트 페스티벌로!  
동성코퍼레이션 & 아트부산  
시민에 의한  
시민을 위한  
애민곡(愛民曲)  
세종시문화재단 '여민락 교향시' 발표 &  
〈여민락 콘서트〉 개최



지역성에 대한 이해가 깊을수록 그곳에 뿌리내린 문화예술의  
진가가 제대로 발휘된다. 여기에 기업과 시민이 주도적으로  
지역의 독창적 콘텐츠를 생산해낸다면 그 시너지는 폭발적인  
문화부흥의 에너지가 된다.

2019 <mecenat> 연중 기획으로 마련한  
'지역으로 뻗어가는 메세나' 그 두 번째 이야기,  
향토적 특색을 반영한 호남·제주지역 메세나 소식을 담아본다.

**칼럼** 기업·시민 참여로 싹 트는 호남 메세나  
글. 김민정(광주문화재단 기금조성TF팀 연구원)

제주에 부는 메세나 바람!  
글. 김태관(문화예술학박사, 제주아트센터 공연운영팀)

**인터뷰** 지역 특화 메세나  
예술부흥의 동력!  
김선희(우진문화재단 이사장)

호남·제주 편

# 南 남다른 메세나

**메세나지도** 한눈에 살펴보는  
호남·제주 메세나 지도  
글. 메세나 편집부

# 멋과 흥이 춤추는 땅

칼럼 1

기업·시민 참여로 싹 트는 호남 메세나

호남의 문화예술은 어느 때보다 강렬한 열정과 열망으로 메세나의 푸른 희망을 키워나간다. 전통 공연예술 특화 지원, 시민 참여형 프로젝트 추진 등 지역 특색 짙은 메세나로 예향의 고장을 완성한다.

01  
광주지역 기업메세나를 통해 후원받는 안유자 미디어아트 작가의 작품  
<찬란한 존재의 빛>

02  
광주은행과 KCTV광주방송이 2013년부터 꾸준히 후원하는 '정음성음악축제 성악공쿠르'

03  
시민 문화향유 기회를 위해 신한은행 광주지점 직원들이 기획한 플래시몹 공연



01



02



03



### 자발적 시민형 메세나

여름이라는 말이 '열음'에서 유래했다는 설이 전해지듯 여름은 열매를 맺는 데 반드시 필요한 인고의 시간이다.

호남의 메세나도 그 열매를 기다리며 값진 땀을 흘리는 중이다. 특히 호남 메세나의 구심점이라 할 수 있는 광주는 광주문화재단을 주축으로 시민 참여형 메세나인 '문화보듬10000' 운동을 통해 지역만의 자생력 있는 메세나를 만들어가고 있다. 평범한 시민 1만 명이 매월 1만 원을 지역 문화예술을 위해 기부하는 문화사랑 운동으로, 광주를 문화예술로 새롭게 만들자는 취지에서 시작됐다. 2015년 12월 기부자센터인 문화보듬10000센터 개소 이후 본격적으로 추진된 이 운동은 말 그대로 광주 시민의 정가·소액기부 참여로 진행되는 광주형 메세나 운동이다. 2015년 370명을 시작으로 어느덧 1,220여 명이 기부활동에 참여하고 있다. 메세나가 기업의 문화예술활동 후원이라 한다면, 문화보

듬10000운동은 시민메세나라 할 수 있다. 또한 문화예술 펀딩프로젝트 '만세만세 만(萬)만(滿)계'도 지역의 호응이 높다. '계'는 시민 모두가 하나의 계원인 문화공동체 광주를 상징하는 용어로, 이 프로젝트는 2017년 14개 예술인(단체)을 위한 모금으로 시작돼 현재까지 총 44개 지역 예술인(단체)을 후원하는 모금으로 확대됐다. 남화산업㈜, 대평건설, 금호홀딩스, 삼영상사, 커브스주업클럽 등 기업과 약 1,130여 명의 시민들이 후원한 결과 신진예술가의 첫 개인전은 물론, 전 좌석에 쟈배를 놓고 관객과 함께 공연을 완성하는 아프리카 타악 공연까지 지역의 다양한 문화생태계를 키워 나갈 수 있었다. 무엇보다 기업과 시민의 자발적 문화기부가 예술단체의 안정적 재원조성으로 이어져 창작기반을 개선하고, 시민에게 양질의 문화예술로 되돌아가도록 선순환 구조를 만들어가고 있다.

### 지역적 확장 위한 과제

기업과 예술인을 직접 잇는 기업메세나 프로젝트도 있다. 지역특성화 장르인 미디어아트를 주제로 기업이 지역 미디어아트 작가의 든든한 후원인이 되는 방식이다. 현재까지 총 7개 기업이 참여했으며 이를 통해 작가는 작품세계를 구체화해 지속적인 작품 활동으로 지역민의 문화향유 기회 제공을 확대하고 비엔날레 등 세계적인 무대의 연계 전시 추진 등 지역 특성화 장르로서 미디어아트를 굳건히 하고 있다.

지역 축제에서도 기업 후원의 역할이 크다. 광주은행은 2013년부터 정음성 음악축제를 꾸준히 지원해 지역의 젊은 성악인을 발굴하고 있으며 2016년부터는 KCTV광주방송도 함께 든든한 후원자 역할을 하고 있다. 신한은행 광주지점은 직원들과 청소년 스트리트 댄서들이 함께 플래시몹 공연을 기획해 세대를 넘어 청소년의 꿈을 응원하는 메시지를 전하며 공감과 연대의 장을 이뤄냈다. 광주 메세나 운동은 지역예술인 창작활동에 대한 실질적 도움과 질 높은 시민문화향유 기회 증대를 목표로 하고 있다.

한편, 전북의 경우 아직 메세나가 무르익지 않았지만 지역 내에서 메세나의 필요에 대한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그 가운데 전북 메세나의 요람인 우진건설의 문화예술 후원활동은 전북을 넘어 기업의 좋은 롤모델이 되고 있다. 기업에서 자체 설립한 우진문화재단을 통해 30년 가까이 묵묵히 문화예

술활동을 지원하며 전통에 기반한 청년 예술가들의 작품활동을 적극 장려하고 있다. 그밖에 전북은행, 하림, 신아출판사 등도 기업 사업 분야를 살려 거액의 시상금을 전달하거나 문학상 개최 등 다양한 방식으로 지역 문화예술인을 후원하고 있다. 다만, 기업 또는 문화재단의 메세나 활동이 개별적으로 진행되는 경우가 많아 지역적 확장에 다소 어려움이 있음은 부정할 수 없다.

### 성장 위해 인고의 시간 견뎌야

한국모금가협회에서 실시한 2018년 기부인식 실태조사에 따르면 '지역별 기부 참여율' 조사 항목에서 광주·전라지역의 기부참여율이 41.4%로 높은 수치를 보인다. 이는 가장 높은 비율을 나타낸 인천·경기의 45%에 대비해 봐도 상당히 높은 기부참여율이다. 하지만 반색하기에는 이르지 않다. 기부금 사용 항목을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사회복지 또는 자선분야가 65.1%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는 반면, 문화예술분야 기부는 전체 기부의 1.9% 정도밖에 안 될 정도로 미미하기 때문이다.

문화예술의 중요성이 어느 때보다 대두되는 요즘 호남의 메세나 운동도 여름을 맞이했다. 뜨거운 열에 땀을 쏟아낼 일도, 약천후와 같은 상황에 직면할 날들도 많겠지만 호남 메세나의 성장을 위해서는 반드시 필요한 과정이다. 열정적으로 이 계절을 보낸다면 반드시 지역 문화예술의 찬란한 열매를 맺으리라 기대한다. 민주·인권·평화의 상징인 호남의 뜨거운 빛으로 메세나 운동의 열매를 키워, 달고 붉게 익혀야 할 때다. ▼▼



기업과 시민의 자발적 문화기부가 예술단체의 안정적 재원조성으로 이어져 창작기반을 개선하고 시민에게 양질의 문화예술로 되돌아가도록 선순환 구조를 만들어가고 있다



# 자생력 강한 문화예술의

칼럼 2

## 섬

제주에 부는 메세나 바람!

관광의 섬이라는 수식어로 한정하기에는 제주가 지닌 '재주'가 넘치도록 많다. 천혜의 자연을 품은 자부심과 고립의 역사로 인한 아픔을 예술로 승화시킨 만큼 제주를 향한 기업의 관심도 남다르다.



02



01

01-02

해마다 제주은행의 재정지원을 통해 명실상부 제주 예술축제로 자리매김한 제주국제관악제

**공익성 매개로 창출하는 문화예술 경쟁력**

제주 메세나를 이야기할 때 빼놓을 수 없는 곳이 있다. 바로 제주메세나협회다. 2016년부터 본격적으로 사업을 펼친 이곳은 3년이라는 짧은 기간에도 불구하고 조직력 있게 다양한 프로젝트를 추진하며 제주 메세나의 중심축으로 왕성한 활동을 펼치고 있다.

2018년 제주메세나협회 회원사를 살펴보면 지역 악기점에서부터 여행사, IT기업, 호텔, 건설사 등을 비롯해 공기업에 이르기까지 다양하다. 메세나 사업으로 선정된 공연 역시 오페라, 합창단, 오케스트라, 연극은 물론 개인 예술가, 아마추어 통기타 모임, 국악 등으로 다채롭다. 특히 대규모 예산이 소요되는 오페라 공연의 경우, 기업과 예술인 결연사업인 메세나매칭그란트 프로젝트를 통해 한국마사회 제주지역본부와 제주도개발공사가 후원사로 나서며 공연 개최에 큰 힘을 보탤다.

제주메세나협회 회원사들 활동을 살펴보면, KT&G 제주본부는 섬아이청소년오케스트라, 제주장애인연맹, 발달장애인 오케스트라 하음 등을 후원하고 있으며, 월드산업개발은 제주 로컬밴드 디오디올, (썬)빅스튜디오와 제주사랑렌트카는 제주 유일의 동네 오케스트라인 화북윈드오케스트라를 지원하고 있다. 지역 내 사회공헌활동에 앞장서는 한국마사회 제주지역본부 역시 김수하재즈그룹, 콰드르보체, 박순동, 민경연, 김경원 등 다원예술 분야를 집중 지원하며 공익 후원활동을 이어가고 있

으며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도 백록수필문학회, 김성란, 송해인 등 개인 및 단체 예술활동의 장을 적극 마련하고 있다. 이 모두가 2000년 초반에 비하면 두 배 가까이 늘어난 성과다.

**기업 후광 넘어선 지역 예술축제 성장**

한편, 해마다 6월이면 제주 동부지역 문화예술의 불모지인 표선 지역으로 전국 문화예술단체와 예술가 및 행정가들이 모여든다. 바로 한국문화예술회관연합회 주관으로 진행되는 제주해비치아트페스티벌 때문이다. 대규모 문화예술마켓으로 자리잡은 이 행사는 해비치호텔을 자회사로 둔 현대자동차그룹의 후원이 있었기에 가능했다.

굵직한 지역 문화축제의 포문을 연 곳은 이번만이 아니다. 제주은행은 수 년 동안 제주국제관악제를 재정 지원하며 초기 열악했던 축제 운영에 중요한 해결사로 나섰다. 제주농협은 지난 2004년 제주 국제합창제에 사용되는 모든 인쇄물을 직접 지원하는 기업협찬으로 지역 문화예술단체와 음악축제 지원의 모범사례로 꼽혔다. 나아가 민간합창단을



지속적이고도 안정된 기업의 지원을 바탕으로 문화예술단체의 책임감 있는 작품개발 및 활동을 통해 지역 문화예술의 선순환적인 문화예술 생태계를 조성하는 것으로 그 가치가 실현된다



03

2018년 11월 11일 제주메세나협회 지원사업(매칭그란트 사업)으로 선정된 제주오페라연구소의 오페라 <토스카> 제주아트센터 공연 현장

조성해 합창단 운영을 적극적으로 지원하며 기업이 운영하는 예술단체의 선도적 모델을 제시했다. 세계적으로 유명한 음악축제 중 하나인 잘츠부르크 음악축제의 경우 후원금이 가장 많은 축제로 꼽힌다. 물론 축제 후원사인 네슬레, 아우디의 후광을 빼놓을 수 없다. 영향력 있는 기업의 메세나 활동은 축제의 품격과 명성을 더욱 높일 뿐 아니라 기업의 이미지 제고에도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친다. 제주에서도 이와 같은 사례가 나오지 않으리란 법은 없다.

**안정적이고 지속가능한 지원 관건**

메세나는 단순 문화예술 지원이 아닌, 지속적이고도 안정된 기업의 지원을 바탕으로 문화예술단체의 책임감 있는 작품개발 및 활동을 통해 지역 문화예술의 선순환적인 문화예술 생태계를 조성하는 것으로 그 가치가 실현된다. 제주메세나협회에 현재 약 50여 개 기업체가 회원사로 활동하고 있지만 보다 많은 대규모 기업체의 참여가 절실하다. 또한 협회를 통해 현재 매칭그란트, 메모리콘서트, 제주메세나 CEO포럼, 메세나예술영재캠프 등 다양한 메세나 프로그램이 운영되고 있지만 제주 문화예술발전을 누구보다 염원하는 한 사람으로서 조금 더 욕심을 내고 싶다. 기업이 단순 재정 지원을 넘어 예술단체와 기획단계에서부터 적극 머리를 맞대어 제주 고유한 문화와 전통, 관광을 접목한 창작 프로그램을 개발한다면 세계유일의 문화예술 콘텐츠가 생산되리라 믿어 의심치 않는다.

제주 문화예술 부흥을 위해 많은 기여를 한 제주메세나협회와 회원사들에 매우 감사한 마음을 전하며, 여름보다 뜨거운 제주의 메세나 열기를 기대한다. 📌

0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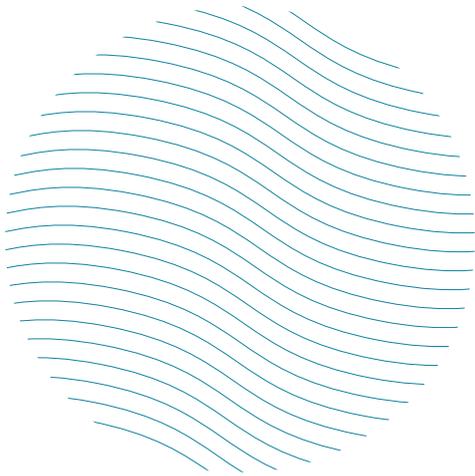




# 지역 특화 메세나

인터뷰

## 예술부흥의 동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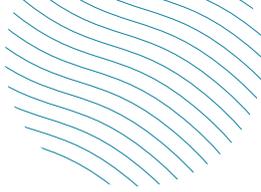
### 김선희 우진문화재단 이사장

우진문화재단은 전북지역 대표  
메세나기업 우진건설(주)이 설립한  
문화예술재단이다.

국악, 무용, 미술 등 다양한 장르의  
지역 청년 예술가들의 활동 거점이  
되는 우진문화공간은 내년이면 벌써  
서른 해를 맞는다.

김선희 우진문화재단 이사장을 만나  
지역 예술과 함께 훌쩍 자란  
메세나 성장기를 들어본다.





01  
녹음 짙은 담쟁이넝쿨로  
꾸며진 우진문화공간 외관

02  
365일 무료 개방하는  
우진문화공간 갤러리

03  
예술극장동 건물에서 바라본  
정원 풍경

02



**우진문화공간은 지역민들과 도내 예술인들에게 장소 이상의 남다른 가치로 여겨질 듯합니다.**

전주천 옆, 외벽을 뒤덮은 담쟁이넝쿨, 운치 있는 정원으로 곳곳을 채운 우진문화공간은 도민은 물론 지역 예술인의 쉼터이자 문화예술 안식처입니다. 이곳은 크게 갤러리동과 예술극장동 두 곳으로 나뉘는데 갤러리, 소극장(175석 규모) 등 전시·공연 시설은 물론 오페라실, 기악·성악 연습실, 무용 연습실, 세미나실 등 창작가를 위한 공간도 마련돼 있습니다. 공간을 구상하는 단계부터 예술인들의 특성을 세심히 분석되고 반영한 결과입니다.

시설을 짓는 데만 급급했다면 지금의 공간은 조성되지 못했을 것입니다. 작가들이 작품활동 중간에 잠시 벤치에 앉아 쉴 때도 삭막한 건물이 보이기보다 예술적 영감을 줄 수 있는 소재들이 눈에 들어오도록 배려했습니

다. 작가로서 이곳을 이용하는 데 대한 자부심을 느끼도록 의도한 공간이기도 하죠. 시민들에게 우진문화공간은 문턱 없는 문화예술 아지트입니다.

**29년째 지역 문화예술 발전에 앞장서는 우진문화재단의 사업 추진 원동력은 무엇인지요.**

문화예술사업에 대한 기업의 확고한 신념이 가장 중요합니다. 재단은 이를 오롯이 이어가며 실행합니다. 우진문화공간을 개관한 1991년은 우리나라에서 메세나 개념조차 잘 인식하지 못할 때였습니다. 오래 전부터 이 사업을 기획한 우진건설 김경곤 회장님은 기업이 축적한 부(副)가 지역사회 덕분이라 여기고 지역에 환원할 뜻을 품었습니다.

지원의 사각지대에 놓인 지역 전반의 문제를 살피던 중 회장님 눈에 들어온 것이 바로 문화예술이었죠. 전북이



우진문화재단은 전북 전주에서 활동하는 전업예술가를 지원한다는 큰 원칙을 지킵니다. 지역중심 지원 사업에 집중하기 위함입니다. 전주에서 뿌리내리고 상주하는 45세 이하 작가들을 지원 대상으로 하며, 대학을 갓 졸업한 신예 예술가를 위한 등용무대도 마련돼 있습니다.



03





04



05

예향의 고장인 반면 당시 문화예술인의 삶은 매우 어려웠습니다. 뚜렷한 자기 확신 없이는 지원 사업을 펼치기 어려울 만큼 당시 상황은 열악했습니다.

하지만 내년이면 어느덧 우진문화공간 개관 30주년을 맞습니다. 처음에 사옥 한 층에서 시작했지만 지금은 독립건물로서 복합문화시설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지원 사업도 해마다 다양화되고 안정된 기반 위에 지속적인 운영이 가능해졌습니다. 이 모두가 지역 문화예술에 대한 자부심, 예술부흥에 대한 확신 없이는 이룰 수 없는 것들이죠.

**전북지역의 특화점 또는 강점을 살린 대표적인 메세나 사례가 있다면 소개 부탁드립니다.**

우진문화재단은 전라도 전통문화예술에 집중합니다. 처음 시작한 사업도 <판소리 다섯바탕의 멋>입니다. 판소리가 전주를 중심으로 가장 활발히 소비되는 문화임에도 판소리를 제대로 감상할 수 있는 공연이 없었습니다. 현 단계에서 최고의 명창을 모시는 공연을 하는 것으로 시작했습니다. 1991년 시작해 올해 29회째 공연을 진행한 <판소리 다섯바탕의 멋>은 하루 한 바탕씩 5일간 두 시간씩 공연하면 곡에 따라 거의 완창에 가까운 무대를 관객에게 선사하기도 합니다. 고(故) 박동진 명창과 안숙선 명창은 물론 내로라하는 명창들이 모두 이 무대에 올랐습니다. 그분들의 제자들이 스승에

이어 오늘날 <판소리 다섯바탕의 멋> 무대의 명맥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국악이 때로는 시대에 맞게 변형될 수 있지만 원형의 틀이 있어야 변형도 가능하죠. 우진문화재단은 그 원형에 집중해 꾸준히 끌고 갈 예정입니다.

**특히 우진문화재단의 철학을 담은 차별화된 사업이 있으신지요. 재단의 주요 성과도 함께 말씀 부탁드립니다.**

우진문화재단은 전북 전주에서 활동하는 전업예술가를 지원한다는 큰 원칙을 지킵니다. 지역중심 지원 사업에 집중하기 위함입니다. 전주에서 뿌리내리고 상주하는 45세 이하 작가들을 지원 대상으로 하며, 대학을 갓 졸업한 신예 예술가를 위한 등용무대도 마련돼 있습니다. 30세 이하 무용가를 뽑는 <신인춤판>, 당해 미대 졸업생을 각 분야별로 뽑아 한 자리에서 작품을 전시하는 <신예작가초대전> 등이 그에 해당됩니다. 그 외에도 젊은 공연예술가들을 위한 <우리소리 우리가락>이나 <우리춤작가전> 등 국악, 무용, 미술 전 장르를 아울러 공모를 통해 포트폴리오를 받은 뒤 엄격한 심사를 거쳐 지원 작가를 선정합니다. 1년 전 선정을 완료해 다음해 작품을 무대에 올립니다.

특히 우진문화공간은 지역 문화예술의 인큐베이팅으로서 아마추어 대상이 아닌 전업예술가들에 한해 연습실 및 공간을 제공합니다.

04 고급 무대설비와 165석의 안락한 객석을 갖춘 예술극장 내부

05 방문객들에게 쉽고 영감을 제공하는 정원 전경



**우리나라 지역 메세나는 아직 과도기 또는 성장기라 할 수 있습니다. 도내 메세나 활성화를 위해 해결돼야 할 난제들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는지요.**

우진문화재단의 경우 전국으로서의 확장보다는 전북 안에서 좀 더 내실 있게 사업을 운영하는 것을 추구합니다. 물론 재원의 한계도 있지만 지역적 내실을 기하는 것이 곧 그 지역 전반의 메세나에 힘을 실는 것이라 생각합니다. 지역 예술인이 힘을 잃으면 그곳의 예술은 자생력을 잃기 쉬워요. 그래서 우리는 무리하게 지원 대상을 확대하거나 지역을 넓히기보다 지금 현재 우리 지역의 예술가에 관심을 두고 지원 타깃을 집중하려 합니다.

**한국메세나협회 및 관련 정부기관에 바라는 점이 있다면 말씀 부탁드립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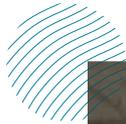
모든 관련 협회나 기관이 서울과 경기권에 위치해 지방보다는 많이 기회가 주어지는 것이 사실입니다. 지방 예술가들은 아무리 교통 여건이 개선돼도 지리적 한계로 인해 기회를 잡기 어렵습니다. 그 대안으로 지역할당제가 주어지면 어떨지 생각해봅니다. 다만 수도권을 오가는 지원 사업이 아닌 지역에서 작품활동 성과에 대

한 피드백을 받으며 관리 받을 수 있게 한다면 지역 문화예술단체나 기업의 메세나 활동에 대한 관심과 참여도 확장될 것이라 봅니다.

덧붙여 사회 전반의 인식 개선도 필요함을 전하고 싶습니다. 메세나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기업 경영인의 신념이 가장 중요하지만, 그에 못지않게 기업 메세나에 대해 칭찬하는 사회적 분위기가 조성되길 바랍니다. 인정과 격려가 기업의 또 다른 메세나를 끌어내는 동력입니다.

**끝으로 예술경영인으로서 꿈꾸는 예향의 고장 전북은 어떤 모습일지 궁금합니다.**

오로지 예술로 자신의 생업이 보장받는 고장이 되면 좋겠습니다. 화가는 그림을, 무용가는 공연예술을 통해 말이죠. 그런 일이 현실화된다면 지속가능한 예술 활동을 펼칠 수 있을 것입니다. 보통 지역경제가 힘들어지면 사람들은 문화생활부터 중단합니다. 하지만 아이러니하게도 사람들은 삶이 힘든 순간, 문화예술을 통해 힘을 얻고 그 감동으로 희망을 꿈꿉니다. 작가가 작품으로 먹고 살 수 있는 예향 전북, 온전히 예술에 집중할 수 있는 전북을 만들어갈 것입니다. 📌



지역적 내실을 기하는 것이 곧 그 지역 전반의 메세나에 힘을 실는 것이라 생각합니다.



# 한눈에 살펴보는 호남·제주 메세나 지도

인포그래픽

우진문화공간 • SKT 청년갤러리

유스퀘어문화관 •

포스코광양백운아트홀 •

GS칼텍스 예술마루 •

예술공간 이아  
KT&G상상유니브 제주아트리에  
한라아트홀 대극장  
돌담갤러리  
제주메세나협회  
가시리창작지원센터  
렛츠런파크 제주

## 우진문화공간

- 개관 : 1991년
- 협력기업 : 우진건설(주)
- 특징 : 국악, 무용, 뮤지컬, 연극, 미술 등 예술 장르를 아울러 신진 작가 발굴·육성을 위한 예술극장과 갤러리, 연습실 등 제공
- 주소 : 전북 전주시 덕진구 전주천동로376
- 홈페이지 : www.woojin.or.kr

## SKT 청년갤러리

- 개관 : 2019년
- 협력기업 : SKT
- 특징 : 기업의 도시재생사업 참여 일환으로, 이동통신사업무공간을 전시공간으로 꾸며 지역 예술가들에게 전시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마련한 갤러리
- 주소 : 전북 전주시 완산구 기린대로 194 SK

## 유스퀘어문화관

- 개관 : 2009년
- 협력기업 : 금호아시아나문화재단
- 특징 : 올해로 개관 10주년을 맞은 광주광역시 대표 문화공간. 금호아트홀, 금호갤러리, 동산아트홀이 자리해 매년 200여 건의 공연과 전시를 열어 지역주민들의 여가와 문화생활에 기여
- 주소 : 광주광역시 서구 무진대로904
- 홈페이지 : www.usquareculture.co.kr

## 포스코광양백운아트홀

- 개관 : 1992년
- 협력기업 : 포스코
- 특징 : 기업 직원과 지역주민들의 문화생활과 정서함양을 위해 개관한 복합문화시설로 음악회, 연극, 뮤지컬, 무용, 국악 등 다양한 장르의 우수한 공연 유치. 지난해 6개월간의 리모델링을 통해 대대적으로 시설 개선
- 주소 : 전남 광양시 금호로215 백운아트홀

## GS칼텍스 예술마루

- 개관 : 2012년
- 협력기업 : GS칼텍스
- 특징 : 공연장, 전시실, 분수광장, 다도해정원, 전망대 등을 갖춘 전문문화예술공간으로, 지역 음악영재 육성 및 초·중·고등 학생을 위한 공연예절 및 직업체험 교육 등 다채로운 문화예술 프로그램 운영
- 주소 : 전남 여수시 예술마루로100
- 홈페이지 : www.yeulmaru.org

## 제주메세나협회

- 창립 : 2015년
- 대표자 : 김대형 회장(제주상공회의소 회장)
- 주소 :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동광로51, 3층
- 홈페이지 : www.jjmecenat.or.kr

## 예술공간 이아

- 개관 : 2017년
- 협력기업 : 제주문화예술재단
- 특징 : 옛 제주대학교 병원을 리모델링해 조성한 곳으로 작가 레지던시, 전시장, 연습공간 및 창의적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 마련. 지역과의 긴밀한 연계를 통해 도민 문화향유 기회 확대
- 주소 :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중앙로14길 21
- 홈페이지 : artspaceiaa.kr

## KT&G상상유니브 제주아트리에

- 개관 : 2011년
- 협력기업 : KT&G
- 특징 : KT&G의 독창적 사회공헌 실현을 위해 전국 16개 도시에 마련된 곳 중 하나로, 대학생을 대상으로 컬처, 아트, 라이프, 커리어 등 다양한 영역에서 배움과 교류, 나눔의 기회 제공
- 주소 :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연북로33(KT&G 2층)
- 홈페이지 : www.facebook.com/univjeju

## 한라아트홀 대극장

- 개관 : 2001년
- 협력기업 : 제주한라대학교
- 특징 : 지하 1층부터 지상 3층에 걸쳐 다목적홀과 전시실, 생활음악 연습실 및 합주, 실내악실 등을 비롯해 음악, 무용, 연극, 영화 등 다양한 장르의 문화예술을 소화할 수 있는 831석 규모의 공연장을 갖춘
- 주소 :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한라대로38
- 홈페이지 : www.chu.ac.kr

## 렛츠런파크 제주

- 개관 : 1990년
- 협력기업 : 한국마사회
- 특징 : 말과 연계된 작품 전시, 체험활동, 테마파크 상시 운영은 물론 클래식과 대중음악 기획 콘서트를 고루 선보이며 지역민과 외지 관광객들에게 열린 문화체험공간으로 역할
- 주소 :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애월읍 평화로2144
- 홈페이지 : park.kra.co.kr/jeju

## 돌담갤러리

- 개관 : 2019년
- 협력기업 : KEB하나은행
- 특징 : 제주 KEB하나은행의 '지역자산화 프로젝트(원도심의 오래된 건물을 리모델링해 주변 상권의 환경을 개선하고 지역경제를 살리기 위해 진행되는 사업)'을 위해 마련된 전시·문화공간
- 주소 :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중앙로58 KEB하나은행 제주금융센터지점 지하 1층

## 가시리창작지원센터

- 개관 : 2010년
- 협력기업 : 가시리마을회
- 특징 : 국내 최초로 마을자체에서 문화예술인들을 위해 만든 레지던시 공간으로 다양한 장르의 문화예술인들이 모여 작업과 활동 진행
- 주소 :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표선면 가시리565번길 20

## 숫자로 보는 호남·제주 주요 문화예술 활동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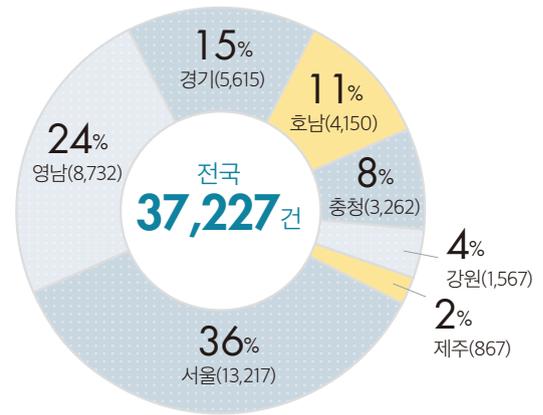
한국문화예술위원회가 발표한 <2018년 문예연감> 자료에 따르면 2017년 (최근 조사완료 기준) 17개 시도 문화예술 활동 건수 중 서울이 13,217건, 호남(전북·전남·광주)지역이 4,150건, 제주가 867건 집계된 것으로 나타났다. 비율로 살펴보면 서울이 전국 문화예술 활동 건수의 36%, 호남이 11%, 제주가 2%를 차지한다. 건수를 기준으로 전국 주요 지역군을 나열하면, 서울-영남(경남·경북·울산·대구·부산)-경기-호남-충청(충남·충북·대전·세종)-강원-제주 순이다.

한편, 호남지역 내 세부 항목별 비율로는 전시(시각예술) 활동이 36%로 다른 분야에 비해 높게 나왔으며 음악 활동 31%, 연극 19%에 이어 무용이 3%로 가장 낮게 나타났다.

제주지역의 경우 호남과 달리, 음악 활동이 36%로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했으며, 전시 활동이 33%, 연극이 18%, 무용이 4% 비율인 것으로 나타났다.

인구밀집, 지역규모의 차이가 있으나 서울·경기, 영남권에 비해 호남지역 문화예술 활동이 비교적 활발히 진행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반면, 제주 지역은 접근성을 포함한 지리적 제약이 있을 수 있으나 문화예술을 기반한 원도 심개발이 활발히 진행되는 만큼 향후 발전 추이가 기대되는 지역이다.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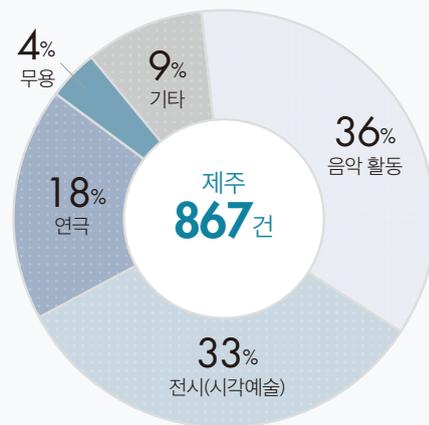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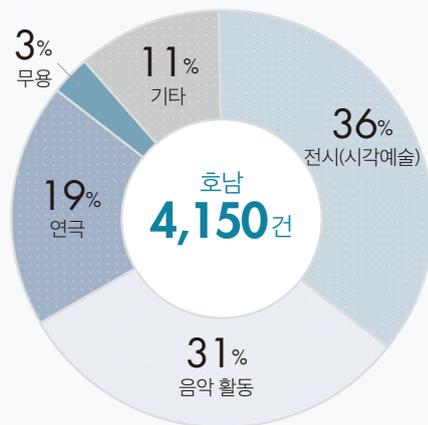
## 지역군 별 문화예술 활동 건수



### ※용례

- 호남 : 전북·전남·광주 통칭
- 영남 : 경남·경북·울산·대구·부산 통칭
- 충청 : 충남·충북·대전·세종 통칭

## 호남·제주 주요 문화예술 활동



\*출처 : <2018 문예연감> 한국문화예술위원회

# 문화예술의 숨은 뮤즈 오페라하우스

영국 '로열 오페라하우스' & 프랑스 '파리 오페라하우스'의 메세나



기업 입장에서 오페라하우스는 예술적 후원 대상 이상으로  
차별화되고 공격적인 마케팅이 가능한 활용 가치가 높은 공간이다.

동시에 오페라하우스에 있어 메세나는  
수준 높은 예술성을 지탱하게 하는 숨은 조력자다.

## 화려한 미장센의 후원 가치

런던과 파리, 유로스타로 겨우 두 시간 남짓한 거리에 위치한 두 도시는 각각 영국과 프랑스의 수도이자 유럽 내에서 손꼽히는 문화예술의 중심지다. 이 도시의 중심에 각각 자리 잡고 있는 로열 오페라하우스(Royal Opera House)와 파리 오페라하우스(Opéra National de Paris)는 매 시즌 시작 전부터 예매전쟁을 치러야만 주요 레퍼토리를 여유 있게 즐길 수 있을 만큼 충성도 높은 관객들의 지속적인 사랑을 받고 있는 대표적인 공연예술기관이다. 이는 그들이 선보이는 프로덕션의 완성도와 질적 수준에 대한 방증이기도 하다. 그리고 이러한 높은 수준의 작품을 꾸준히 선보일 수 있는 기반에는 작품을 선별하는 안목과 폭넓은 아티스트 풀 등 예술적 인프라뿐만 아니라 재정적인 부분도 빼놓을 수 없다. 공공 지원금이나 일반적인 판매수입 외에 개인 또는 기업의 후원을 유치하기 위해 다양한 방법을 독려하고 있는 두 극장의 같은 듯 다른 메세나 프로그램에 주목해 보자.

1960년대부터 유럽의 기업들은 공식적인 예술 후원 사업에 활발하게 나섰다. 이는 단순한 기업의 사회 환원의 측면과 이미지 제고뿐 아니라, 세율이 높은 유럽에서 면세 혜택을 받을 수 있다는 점에서 천문학적 규모의 액수가 오가는 투자는행이나 재력을 갖춘 개인에게 매력적인 선택으로 다가왔다. 필자는 언젠가 프랑스의 한 투자자문회사 CEO에게서 메세나 프로그램이 비즈니스 관계에 미치는 영향과 장점에 대해 이야기를 들을 기회가 있었다. 미술관 3성급 레스토랑에서의 저녁식사와 예매가 쉽지 않은 오페라나 발레 한 편을 묶어 제공하는 것은 클라이언트에게 최고의 접대라는 것이다. 단순한 볼거리나 오락을 위한 것이라면 다른 콘텐츠를 찾는 것이 어려운 일은 아니지만, 장소가 주는 압도적인 분위기와 매 공연마다 신선한 미장센을 선보이는 고품격의 새로운 프로덕션, 그리고 인터미션에 즐기는 샴페인 등을 고려하면 가장 안전한 선택이라는 것이다.

극장에 들어서는 순간부터 관객들은 곳곳에 후원과 메세나를 격려하는 광고와 마주하게 된다. 화장실 칸막이에도 메세나 프로그램의 하나인 '좌석 기부(Name a seat)'에 대한 안내광고가 부착돼 있다

### 런던, 다양한 개인을 위한 맞춤형 메세나

런던의 로열 오페라하우스는 영국 로열 발레단과 로열 오페라단이 기반을 두고 있는 극장으로, 흔히 코벤트가든이라 불린다. 1660년 찰스 2세에 의해 왕립극장으로 시작했기 때문에 여전히 입구엔 영국왕실의 문장이 새겨져 있다. 극장에 들어서는 순간부터 관객들은 곳곳에 후원과 메세나를 격려하는 광고와 마주하게 된다. 화장실 칸막이에도 메세나 프로그램의 하나인 '좌석 기부(Name a seat)'에 대한 안내광고가 부착돼 있다. 최소 금액은 500파운드(한화 약 90만 원)로, '좌석 기부를 통해 당신만의 좌석을 갖게 되는 특별한 경험을 놓치지 말라'는 문구가 눈에 띈다.

로열 오페라하우스를 후원하는 방법은 매우 다양하다. 일정 금액을 기부하고 '패트론(Patron)'이 되거나 극장이 자체적으로 운영하는 '기부기금(Endowment Fund)'에 가입하는 방법, 기업후원을 포함하는 '스폰서십' 혹은 로열 오페라하우스의 '친구들'이라는 후원회에 가입하는 방법까지 규모와 대상, 방식에 따라 다양한 선택지가 존재한다. 기업 스폰서로는 샤넬, 롤렉스, 아쿠아 디 파르마 등 하이엔드 패션 브랜드부터, 관련 사업이라 할 수 있는 유명 상들리에 브랜드 라스비트, 투자 자문회사인 래스본스, 미쓰비시도쿄UFJ은행, 아우디, 아메리칸 익스프레스, 남성화 브랜드 핀스베리 같은 익숙한 이름이 주를 이룬다. 개인이 설립한 각종 문화예술 관



02

런 재단 역시 심심치 않게 눈에 띈다. 이 밖에 패트론은 금액에 따라 시즌 전체 · 오프닝 공연 · 일반 등으로 멤버십 등급이 나뉜다. 명단이 공개된 패트론과 후원회 목록을 살펴보면 시즌 전체와 오프닝 공연 멤버십에는 유난히 ‘Lord’ ‘Sir’ ‘Lady’ ‘Dr.’ 등 사회적 지위를 드러내는 호칭이 많다. 부부가 나란히 이름을 올린 경우도 있고 가족 전체가 ‘Family’라고 한번에 이름을 기재한 경우도 있다.

로열 오페라하우스에서 판매하는 프로그램 북의 마지막 페이지에 이들의 명단이 빠짐없이 담긴다. 그밖에 익명의 후원자들이 더 있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 구체적인 인원을 표시하고, 메세나 종류별 페이지를 구성해 정보를 제공한다. 후원회나 패트론 멤버십, 기부기금 가입 안내를 받을 수 있는 담당자 이름과 전화번호 및 이메일 주소도 친절하게 남겨뒀다. 패트론 멤버십 중에는 평생회원도 있는데, 한번 가입하면 개인과 기업 회원에게 최고의 좌석과 함께 최대한의 편의를 고려한 맞춤형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고 강조하고 있다. 개인 후원을 최대한 늘리기 위해 극장에서 매우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음을 알 수 있다.

#### 파리, 선택과 집중 그리고 미래를 위한 투자

개인을 중심으로 한 메세나의 저변 확대를 위해 총력을 기울이고 있는 로열 오페라하우스에 비해, 파리 오페라하우스의 메세나는 조금 다른 방식으로 운영된다.

스폰서로 나선 기업과의 파트너십을 먼저 살펴보면, 스위스 최고의 명품 시계 브랜드인 바쉐론 콘스탄틴을 빠트릴 수 없다. 비록 이제는 그 관계를 끝내고 롤렉스라는 새로운 파트너와 손잡게 되었지만, 이전의 이들이 파트너십을 통해 보여준 시너지가 무척 흥미롭다. 바쉐론 콘스탄틴은 정교하게 갈고닦은 무용수들의 기량과 무대에서의 순간을 위해 평생을 헌신하는 삶의 태도가 브랜드가 추구하는 지점과 맞아맞았음을 확인하고 2007년 파리 오페라 발레단의 적극적인 스폰서로 나섰다. 2012년에는 시카고 · 워싱턴 · 뉴욕에서 진행된 미국 투어가 성사될 수 있도록 전폭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았고, 전 예술감독인 브리짓 르페르의 은퇴 기념 이브닝 파티는 물론, 화제를 모으며 파리 오페라 발레단의 후임 예술감독으

02

1858년 지어져 1990년대 재건축된 영국 오페라 공연예술의 발생지 ‘로열 오페라하우스’  
©서터스톡

로 선임된 뱅자맹 밀피에를 축하하는 만찬을 열었다. 바세론 콘스탄틴은 선택적으로 초대할 수십 명의 귀빈을 위한 비공개 행사도 자주 열었다. 선택된 사람들에게는 바세론 콘스탄틴과 파리 오페라 발레단의 파트너십을 기념한 특별 영상을 최초로 공개하거나 한정판 컬렉션을 선보이기도 했다.

일반 메세나 프로그램도 운영하고 있다. '파리 오페라하우스 발전을 위한 모임(AROP, L'Association pour le rayonnement de l'Opéra national de Paris)'은 기업이나 개인회원을 대상으로 철저하게 맞춤형으로 운영되고 있는데, 기부 금액에 따라 4개의 등급('Ami' 'Donateur' 'Bienfaiteur' 'Mécène')으로 나누어 혜택에 차등을 두고 있다. 이들은 일반인에게 티켓이 오픈되는 시점보다 일주일 이상 앞서 예매가 가능하며, 공연 2일 전 혹은 15일 전부터 티켓 수령이 가능하다. 등급에 따라 미묘하게 차등을 두고 있지만 부담 없는 가격의 'Ami'가 된다면 최대 66%까지 세금공제 혜택을 누릴 수 있고, 원하는 프로그램을 누구보다 먼저 선점할 수 있어 상당한 매력으로 다가서고 있다.

### 청년 관객은 내일의 후원인

이 밖에 특기할 점은 파리 오페라하우스가 오페라와 발레를 '사회적 공공재'로 인식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는 30세 이하의 오페라와 발레 팬을 위해 운영되는 특별 프로그램에서 엿볼 수 있는데, 발레와 오페라를 사랑하는 젊은이들에게 최대 50% 할인된 가격으로 표를 제공하는 것은 물론 부대 프로그램으로 리허설 관람, 오페라 가수 혹은 무용수와의 만남, 극장 가이드 투어, 관련 영상 상영회에 우선 초대 등 공연 안팎으로 다양한 기회를 제공한다. 단순히 하루 저녁의 외출로 극장에서 오페라와 발레를 관람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리허설 관람·아티스트와의 만남 등을 통해 무대예술이라는 장르 자체를 좀 더 깊이 있게 이해하

고, 공연예술을 사랑하는 젊은이들끼리 만나도록 함으로써 유대감을 갖고 교류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해준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파리 오페라하우스의 한 관계자는 이런 젊은 관객을 위한 프로그램이야말로 자신들이 더욱 심혈을 기울여 개발하고 운영해 나갈 메세나 프로그램임을 강조했다. 이는 정부예산을 받아 운영되고 있는 파리 오페라하우스에서 수십 년 이상의 미래를 내다보고 장기적인 관점에서 젊은 관객들이 장차 발레와 오페라를 꾸준히 즐기며 후원을 아끼지 않는 사회적 인재로 성장할 가능성을 높게 보고 투자하는 것이다.

파리 오페라하우스는 발레와 오페라가 소수의 특권 계층만이 향유하는 예술 장르에 갇혀있는 것이 아니라 세대를 이어가며 그 가치를 인정받고 더욱 폭넓게 향유되어야 한다고 이야기한다. 고급 문화예술이 '사회적 공공재'로 인식되어 있고, 국가가 나서서 보호·육성하고 있다는 것을 파리의 메세나 프로그램을 통해 다시 한 번 확인할 수 있었다.

결국 파리 오페라하우스나 로열 오페라하우스 모두 메세나가 일상적인 개념으로 자리잡고, 기업뿐 아니라 개인에게도 적용되며 나아가 후대의 애호가를 육성하는 기반이 될 수 있도록 다각적인 노력을 이어가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국내에도 보다 거시적인 안목의 다양하고 성숙한 메세나 문화가 더욱 성장하기를 기대해본다. ■■

파리 오페라하우스의 젊은 관객을 위한 프로그램은 장기적인 관점에서 젊은 관객들이 장차 발레와 오페라를 꾸준히 즐기며 후원을 아끼지 않는 사회적 인재로 성장할 가능성을 높게 보고 투자하는 것이다



## 김세영

기업 창립 50주년이 갖는 의미는 다양하다. 소비자들의 신뢰, 경영인의 변치 않는 신념, 미래를 내다보는 혜안 등이 어우러져 지속 가능한 기업 경영을 완성한다. 하지만 세 요소들만 갖춰서는 기업이 추구하는 사업 가치를 확장시킬 수 없다. 내년이면 창립 50주년을 맞는 로얄앤컴퍼니는 여기에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문화예술'이라는 콘텐츠를 더해 소비자와 예술인, 잠재적 고객의 만남을 주선한다. 그리고 김세영 대표가 운영하는 '로얄라운지'가 바로 그 아지트다.

# 삶의 품격 깃든 도심 속 문화 아지트

로알라운지 김세영 대표

로알라운지는 로알앤컴퍼니의 서울 논현동 사옥이다. 대로변에 위치한 지리적 여건이 아니더라도 내부가 들여다보이는 건물의 조형이 시선을 사로잡는다. 층 구분 없이 하나의 계단으로 이어지는 이 공간은 쇼룸 혹은 갤러리 아니면 카페인 듯 모습이 다채롭다. 하지만 특 트인 공간을 살피다보면 곧 '삶이 곧 예술'이라는 로알라운지가 전하는 메시지에 미소 짓게 된다. 하루의 시작과 끝을 맞는 욕실, 일상적인 생활이 이뤄지는 리빙공간 등 평범한 삶 속에서 발견하는 다양한 문화예술적 감성을 품격 있는 오브제로 표현한다. 특히 방문객들은 로알라운지 내 갤러리에서 기획전시하는 숨은 보석 같은 다양한 장르의 현대미술을 자연스럽게 접하며 경계 없이 어우러지는 생활 속 예술을 경험한다. 로알라운지 김세영 대표는 이렇듯 가장 고요하고도 강렬한 그녀만의 예술 콘서트를 늘 기획한다.

◆ **갤러리로얄을 아울러 복합문화공간을 표방하는 로얄라운지는 어떠한 가치를 지향하는 공간인지 소개 부탁드립니다.**

시설적인 부분으로 보자면 기업의 쇼룸, 갤러리, 인문아카데미, 레스토랑이 함께 갖춰진 곳입니다. 기능들이 다 나뉘는 듯 보이지만 사실 추구하는 것은 하나지요. 바로 '삶의 품격'을 높이는 것입니다. 가령, 11년 전 논현 사옥 오픈 당시만 해도 아카데미는 미술 분야와 인테리어 강좌만이 개설됐는데 지금은 티(Tea)클래스, 인문학, 플로리스트 강의 등 다양한 분야 강좌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10년 넘게 하나하나 정성을 기울여 전문성 있는 강좌를 준비한 노력이 사람들이 인정해 준 덕분이지요. 유행이나 자극적인 흥미를 쫓는 요소보다는 그저 삶 자체와 깊이 연관된 문화예술을 향유하고 안목을 키워 나가는 유익하고 편안한 공간을 추구합니다.

◆ **기업 사업 분야인 욕실리빙 콘텐츠와 예술을 접목시킨 점이 일반 갤러리와는 출발부터 다른듯합니다. 로얄라운지의 차별화된 특징점은 무엇인지요.**

고객들 덕분에 기업이 성장할 수 있었기 때문에 사회적 환원 차원에서 설립한 곳입니다. 물론 기업 브랜딩 차원의 의미도 있지만 손익을 따지기보다 양질의 문화예술을 선보이는 데 초점을 맞췄습니다. 속도를 내지 않고 차근 차근 조용히 공간을 채워간 덕에 꽤 안정되고 촘촘한 문화예술 콘텐츠를 갖췄다는 점을 우선 자신 있게 말할 수 있습니다. 기업의 또 다른 얼굴인 만큼 정성스럽게 운영할 수밖에 없죠. 갤러리를 운영할 때도 작가 지원 및 후원



*Seyoung Kim*



에 방점을 두고 작가들이 관람객들과 작품을 소통하고 우리 공간을 통해 마음껏 홍보할 수 있도록 신경을 씁니다. 타 갤러리보다 개인 전시기간을 길게 두는 이유이기도 하죠.

◦ **현대미술이라는 틀 안에서 장르 경계 없이 활발히 활동 중인 작가들을 꾸준히 소개하고 계십니다. 참여 작가 및 작품 선정 기준이 있는지요.**

대부분 기획 전시는 거의 초대전으로 진행됩니다. 외부 전문 인사들과 심사 숙고해 선정한 만큼 남다른 작가와 작품에 대해 남다른 애착이 있습니다. 젊은 신진작가부터 중견작가에 이르기까지 연령에 특별히 제한을 두지는 않습니다. 공예, 조각, 설치미술, 회화 등 장르도 다양하죠. 다만, 숨은 보석 같은 작가와 작품을 소개하는 데 큰 의미를 두고 있습니다. 어떤 공간을 보면 갤러리마다 색깔이 있는데 갤러리로알은 오픈된 콘셉트의 공간인 만큼 다양한 색으로 채워집니다. 특히 매번 전혀 다른 전시를 진행하기 때문에 중복된 장르가 연이어 등장하지 않죠. 저뿐만이 관계된 직원 모두가 전시할 때마다 그 작품에 매료돼 작가 이상의 애정을 갖고 준비합니다. 그래서 작가들도 갤러리로알을 좋게 봐주시는 것 같아요. 이 공간에서 전시했다는 프로필이 작가들에게도 자부심이 되도록 더욱 노력할 것입니다.

◦ **신진 아티스트 지원, 아카데미 운영 등 메세나와 맥을 같이 하는 주요 프로젝트 소개도 부탁드립니다.**

로알앤컴퍼니 화성센터에 작가 스튜디오가 마련돼 있습니다. 입주 작가 레지던시 프로그램을 기획해 1기 작가로 두 명을 선정해 운영한 바 있습니다. 지리적 여건 상 작가들의 피드백 기능이 부족할 수 있다는 판단으로 올해는 좀 더 인원을 늘려 작가 선정 공모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저희 화성공장 옆에 있기 때문에 작가와 기업 차원으로 협업하는 것도 구상 중입니다. 특히 지역 환원을 위해 화성 주민들에게 주말 미술공부 클래스를 열어 작가 스튜디오를 활성화하는 방안도 계획 중입니다.

◦ **로알앤컴퍼니가 내년이면 창립 50주년을 맞습니다. 로알라운지가 기업의 메세나 구심점이자 요람으로 향후 펼쳐나갈 행보에 대한 비전이 궁금합니다.**

내년은 기업에 중요한 해인 만큼 로알라운지도 각오가 남다릅니다. 화성 스튜디오를 공장 옆에 둔 것도 장기적 관점에서 작가와 기업이 함께 성장하기 위함이었어요. 단순히 기업이 작가를 지원하는 개념을 넘어 서로 간의 시너지를 통해 폭발적 에너지를 얻고자 합니다. 늘 깨어있는 생각, 열린 마음으로 새로운 자극에 호기심을 갖는 로알앤컴퍼니의 경영 마인드를 좇아 저희 로알라운지도 작가 발굴과 전시 진행, 소비자와의 만남 기회 등을 적극적으로 확장해나갈 예정입니다.

◦ **끝으로 로알라운지가 사람들에게 어떤 공간으로 자리하길 바라는지 말씀 부탁드립니다.**

어떤 마음으로 소비자에게 다가갈까 10년 넘게 꾸준히 고민했고 지금도 고민 중입니다. 요즘은 특히 좋은 문화예술 공간이 많이 있어요. 트렌디하고 핫한 공간이 아무래도 발길을 이끄는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저는 이곳이 번치 않고 늘 그 자리에 있는 공간이 되길 바랍니다. 오랜 시간이 지나도 변함없는 존재, 깊은 정성이 느껴지는 공간이면 좋겠어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전문성이 모여 시너지를 내는 공간이자, 기업과 예술과 삶이 만나는 공간으로 사람들의 마음에 자리하길 바랍니다. 저 역시 전문가를 알아보는 전문가로서 그 안목을 문화예술 소비자들과 공유하고 나누고 싶습니다. 늘 귀와 마음을 열고, 배우는 자세로 로알라운지를 이끌어가겠습니다. ▼▼



기업과 예술과 삶이 만나는 공간으로 사람들의 마음에 자리하길 바랍니다. 저 역시 전문가를 알아보는 전문가로서 그 안목을 문화예술 소비자들과 공유하고 나누고 싶습니다



# 유물 후원과 메세나

노트르담 성당 화재 복원에 대한 프랑스 기업의 대응과 쟁점



01

지난 4월 15일 파리에 있는 노트르담 대성당 화재는 그야말로 전 세계인의 관심을 집중시켰던 사건이었다. 첨탑 개·보수 과정에서 벌어진 화재로 96m 높이의 첨탑과 목재 지붕이 무너지고 내부가 손상되는 등의 피해를 가져왔다. 이에 대한 많은 관심은 일종의 인류 유산에 대한 연대감을 표현하는 상징이 됐고, 결과적으로는 화재 이후의 복원을 위한 기금 모금에 엄청난 반응을 보임으로써 더욱 회자됐다. 그렇다면 이슈들이 제기하는 사회적 의미는 무엇인지, 역사적 유산에 대한 복원의 가치와 메세나의 역할은 어떻게 볼 것인지 짚어본다.

기업의 문화유산 후원에서 세금혜택은  
본질이 아니다. 어떤 경제학자도  
세제 혜택이 기부를 더 많이 유도한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오히려 공공의 역할에  
대한 적절한 보완으로서의 기능을 부각하는  
편이 더 나은 전략이 될 것이다.  
실제로 메세나의 역할은 점점 더  
커지고 있기 때문이다

01  
화재 전 경건하고 웅장한  
위용을 자랑했던 노트르담  
대성당 예배당 내부  
©셔터스톡

02  
화재 발생 한 달 뒤 노트르담  
대성당 주변 모습



02

### 노트르담 대성당 화재 복원과 메세나 후원의 당위성

이번 화재는 무엇보다도 노트르담 대성당에 대한 존재적 가치를 더한 결과를 가져왔다고 볼 수 있다. 실제로 노트르담이 세계인의 사랑을 받기까지 많은 우여곡절들이 있었다. 12세기에 시작하여 1345년경 완공돼 고딕 양식의 최고 걸작으로 알려졌지만 종교에 대한 다른 신념들에 의해 훼손되는 수난을 겪기도 했다. 1540년대에는 교회 혁신을 외치던 위그노(Huguenot)들이 우상숭배라는 이유로 조각상을 파괴했고, 이성이 중시되던 시절 1789년 프랑스 대혁명 때도 일정부분 파괴됐고 손상을 입었다. 이처럼 기독교 건축물로서의 상징성을 상실한 상태에서 방치되고 철거 위기에 놓였지만, 나폴레옹은 노트르담의 지위를 회복시켰다. 그리고 1844년에 들어 무려 20년에 걸친 대보수공사로 이어졌는데, 복원사업의 결정적 계기를 제공한 것이 바로 빅토르 위고의 <노트르담 드 파리>였다. 한 예술가의 작품으로 노트르담의 유산적 가치가 증명된 셈이다.

이처럼 800년이 넘는 역사적 건축물이라는 지점은 그 자체로 매우 소중하나, 긴 세월을 지내면서 개축과 복원사업은 지속적으로 진행되는 것이어서 원형 보존에는 당연히 한계가 있다. 실제로 지금의 노트르담의 모습은 14세

기 완공 이후에도 계속 부대공사가 이뤄진 결과이다. 성당 전면부에 위치한 탑 한 쌍 가운데 북쪽 탑은 나중에 만들어졌고, 화재로 손실된 남쪽 장미창도 나중에 복원됐다. 또 중앙에 설치된 96m 높이 첨탑도 19세기 복원과정에서 더 크고 화려하게 추가된 것이고, 키메라 석상들도 이때 처음 등장한 것이다. 하지만 복원 과정에서 옛 재료와 자재를 구하기 어려워 현대식으로 대체하는 경우도 빈번하다. 다시 말하면 이미 수많은 복원 과정을 통해 조금씩 변형됐다는 것이다.

그래서 먼저 제기되는 이슈가 곧 오리지널리티 혹은 정통성의 문제다. 다시 말해 중세 고딕의 역사적 맥락을 복원할 것인가 아니면 현대적으로 복원할 것인가의 선택의 문제가 남는다는 것이다. 만일 원래의 상태와 동일한 지붕을 원한다면 참나무가 1,300그루 이상이 필요하다는 조건이나 여타의 까다로운 재료 등의 구비가 쉽지 않기 때문이다. 그렇다고 현대식으로 모든 자재나 재료를 대체할 수도 없는 일이다. 그런 점에서 복원 자체가 쉽지 않고, 정통성에 최대한 다가가기 위해 기술적, 문헌적 연구를 거듭하는 등 전문가들의 엄청난 노력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마크롱 대통령은 올림픽이 열리는 2024년을 목표로 5년 안에 복원하자는 의지를 보였지만, 그 자체가 불가능한 이유도 바로 이 지점 때문이다. 국가 소유 대성당은 민간 보험회사의 보험을 들지 않고 국가가 모든 복구를 책임져야하는 상황에서 복원작업을 국고로만 충당될 수 없다. 게다가 10년이건 20년이건 아직 정확한 기일이 나오지 않은 상태에서 비용은 결코 만만치 않다. 따라서 바로 이 지점에서 메세나의 역할이 일정하게 필요하다고 볼 수 있다.

### 메세나의 후원에 대한 이슈와 쟁점

마크롱 대통령은 화재 이후 복원을 위한 자금조성과 관련하여 특별 법안을 발표했다. 이에 따라 노트르담 재단을 비롯한 문화유산 재단 등 4개 단체를 모금을 주도하는 재단으로 정하고, 메세나법에 의한 기부금 혜택을 여기에 적용했다. 즉 법인의 경우 기업 매출의 0.5% 한

03  
기업 세금혜택 논란에 대해  
설명하는 파리 1대학의 장  
미셸 토블링 겸임교수

04  
노트르담 대성당에서 바라본  
스트라스부르 구시가지 전경  
©서터스톡

도 내에서 기부금액의 60%를, 개인의 경우 1,000유로 이하는 75%를, 1,000유로를 넘을 경우는 기부금액의 66%를 세금에서 감면해준다는 것이다. 하지만 모금을 시작한 지 이틀 만에 10억 유로(한화 약 1조 3,320억원)를 넘어서면서 장려책은 별 의미가 없어졌다. 금액은 이미 복원 예상비용보다 많은 액수였고, 프랑스 문화부 전체 예산 중 문화유산과 관련한 예산 3억 5천유로의 세 배에 달한다.

무엇보다도 주요 3대 기업의 참여가 모금액의 대부분을 차지했다. 케링(Kering) 그룹 프랑소아 피노(Pinault) 회장 가족이 1억 유로, LVMH 베르나르 아르노(Arnault) 회장이 2억 유로, 로레알(L'Oréal) 프랑수아즈 베탕쿠르 메이에르(Bettencourt Meyers) 가족이 2억 유로를 제시했다. 이들은 모두 국가적 재난에 대한 연대의 표현으로 기부한다는 의사를 밝혔고, 이어서 Total과 BNP 등의 대기업과 중소기업 등도 나서면서 모금액은 더욱 커졌다.

하지만 결국 논란이 불거졌다. 무엇보다도 전 문화부장관이자 메세나법을 제정한 장 자크 아야공(Jean-Jacques Aillagon)이 기부액 세금공제 한도를 90%까지 올리라고 주장해 반발을 샀다. 그는 피노 측 고문이기도 해 기업 편에 선다는 오해를 불러일으킨 것이다. 기업의 세금 혜택 비율을 높이는 것은 곧 일반인들의 세금을 사용하는 것과 같다는 논리이고, 그렇다면 기업이 노트르담을 복원하는 게 아니라는 것이다. 결국 아야공은 자신의 제안을 하루 만에 철회했고, 피노는 “프랑스 납세자들에게 과금하는 문제는 없을 것이다”며 세액 공제 혜택을 받지 않겠다고 선언했다. 아르노 역시 “기부금의 일부는 거래가 없는 자회사로부터 나왔기 때문에 해당 법률(아야공법)은 적용되지 않는다”면서 세금 혜택과는 상관없음을 밝혔다. 그리고 이미 잘 알려진 대로 여러 좌파 정당과 노조, ‘노랑 조끼’ 및 협회들로부터 비판을 받았다. 막대한 양의 기부금은 결과적으로 기업의 세금혜택을 위한 창구 역할을 한다는 것이다.

이러한 논쟁에 대해 박물관 경영을 가르치는 파리 1대학의 장 미셸 토블링(Jean-Michel Tobelem) 겸임교수는 르몽드지를 비롯하여 여타 매체에 입장을 밝히는 글을 기고한 바 있다. 그는 “아야공의 제안은 기본적으로 메세나의 성격과 역할을 너무 안이하게 본 결과다. 실제로 기업의 문화유산 후원에서 세금혜택은 본질이 아니다. 어떤 경제학자도 세제 혜택이 기부를 더 많이 유도한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오히려 공공의 역할에 대한 적절한 보완으로서의 기능을 부각하는 편이 더 나은 전략이 될 것이다. 실제로 메세나의 역할은 점점 더 커지고 있기 때문이다”고 해 논란을 균형 있게 끌고 가려는 입장을 보였다. 그리고 나아가 현재 논란의 대상이 된 기업의 경우 개인적으로 예술후원의 역할도 병행해 온 만큼, 그러한

후원을 어떻게 공공성을 유지하는 형태로 만들어갈지를 고민할 필요가 있음을 강조했다.

03



#### 프랑스 기업 메세나의 문화유산 보존과 복원 후원

실제로 프랑스에서 문화유산 보존과 복원을 위한 재정은 기업의 참여가 매우 큰 비중을 차지한다는 사실이 보편화돼 있다. 메세나의 문화예술에 대한 후원 가운데 유산 분야는 35%에 달하며, 그 비중이 결코 작지 않으니 꾸준히 그리고 지속적으로 문화유산 보존과 복원에 기여해 왔다고 볼 수 있다. 후원의 형태는 최근 들어 문화유산재단(La Fondation du Patrimoine)

실제로 프랑스에서 문화유산 보존과  
복원을 위한 재정은 기업의 참여가  
매우 큰 비중을 차지한다는 사실이  
보편화돼 있다

과의 파트너십 형태로 진행되는 경우가 많아졌다. 프랑스 기업메세나협의 회(Admical)는 2년마다 <기업 메세나의 지표>를 발간하는데, 최근 들어 점차로 문화예술 영역의 후원은 늘어가는 추세라고 밝히고 있다. 그리고 후원을 하는 동기를 조사하면 ‘문화의 민주화’를 위한 미션에 더 많은 의지를 보인다고 설명한다.

일테면 프랑스 3위 재벌이자 미술품 컬렉터로도 유명한 피노의 경우 파리시와의 파트너십으로 유산 복원 작업에 참여하고 있다. 대상은 18세기에 지어진 파리 상품거래소 건물이다. 이 건물은 19세기에 일어난 화재로 인해 건물이 변형된 이후 지금의 상품 거래소가 됐다. 1949년에 문화유산으로 지정돼 소유권이 파리시 상공회의소로 이전되면서 이 건물의 복원사업이 진행된 것이다. 그리고 2015년에 이 건물은 ‘파리의 재발견’(Réinventer Paris)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파리시가 다시 매입했다. 피노는 50년 동안 이 건물을 사용하는 조건으로 이 공간의 리노베이션을 약속했다. 일본 건축가 타다오 안도가 참여할 리노베이션 공사 추정액은 1억 8백만 유로로 이 금액 전액을 피노와 그 가족이 부담한다. 그리고 피노와 파리시의 현대미술 컬렉션으로 2019년 미술관으로 개관할 예정이다.

04



이번 원고를 쓰는 시점에 운 좋게 파리에 머물게 됐다. 그래서 노트르담 대성당에 다시 가 보았고, 마침 토블링 교수도 만나 직접 이야기를 들을 수 있었다. 결과적으로 이번 화재를 계기로 문화유산의 보존과 복원이 얼마나 중요한지 그리고 그 과정이 지난한 만큼 국고로만 충당하기 어려운 상황을 이해할 수 있었고, 그 지점에서 메세나의 역할을 새삼 확인한 것도 의미 있었다. 다만 세금 혜택과 관련한 논란은 여러 가지로 다른 입장이 있을 수 있겠지만, 그럼에도 사적 영역에서의 기부활동에 대한 인식은 높아지지 않았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된다. 그리고 이를 일종의 ‘노트르담 효과’라고 부를 수 있을지도 모르겠다.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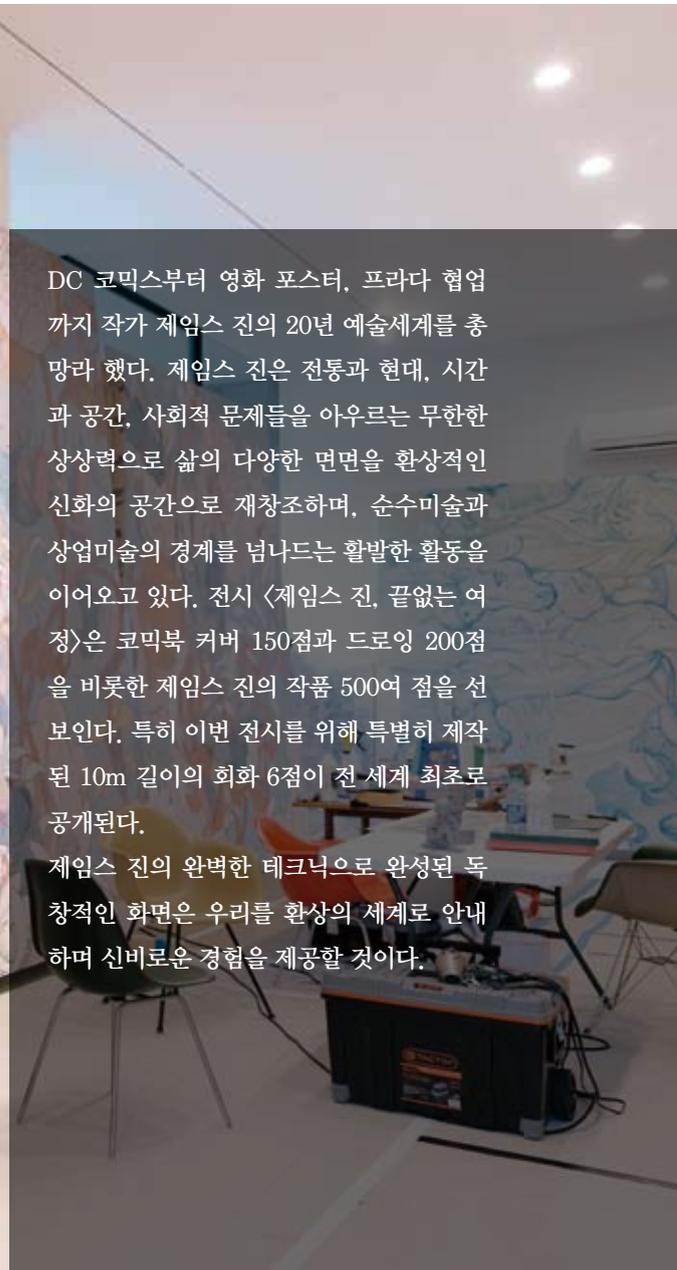
# 제임스 진, 끝없는 여정

롯데뮤지엄



DC 코믹스부터 영화 포스터, 프라다 협업까지 작가 제임스 진의 20년 예술세계를 총망라 했다. 제임스 진은 전통과 현대, 시간과 공간, 사회적 문제들을 아우르는 무한한 상상력으로 삶의 다양한 면면을 환상적인 신화의 공간으로 재창조하며, 순수미술과 상업미술의 경계를 넘나드는 활발한 활동을 이어오고 있다. 전시 <제임스 진, 끝없는 여정>은 코믹북 커버 150점과 드로잉 200점을 비롯한 제임스 진의 작품 500여 점을 선보인다. 특히 이번 전시를 위해 특별히 제작된 10m 길이의 회화 6점이 전 세계 최초로 공개된다.

제임스 진의 완벽한 테크닉으로 완성된 독창적인 화면은 우리를 환상의 세계로 안내하며 신비로운 경험을 제공할 것이다.



01

제임스 진 작가  
©2018 Liz Kuball, Photo by Liz Kuball

02

Aviary - Red Fire, 2019, Acrylic on canvas,  
304.8×624.8cm ©2019 James Jean

03

Tiger - White Metal, 2019, Mixed media on  
cradled copper panel, 197×152.5cm ©2019  
James Jean



02

01



“James Jean is an artist who can visually express the language of various ideas, He is the author of the future in the art world.”

“제임스 진은 다양한 생각의 언어를 시각적으로 표현할 수 있는 예술가이며,  
장차 예술계의 중심에 설 작가다.”

- 무라카미 다카시(팝 아티스트) -

03



**오방색 : 미지의 세계로 가는 이정표**

제임스 진은 이번 전시에서 동서양의 주제를 결합해 만들어낸 자신만의 독특한 도상들과 다양한 재료, 장르가 집약된 새로운 작품들을 공개한다. 그가 선택한 것은 아시아 시각 문화의 모태가 되는 다섯 가지 색, 즉 오방색이다. 방향과 재료의 조합으로 우주 삼라만상의 질서를 담은 다섯 가지 색은 무엇보다 작가 개인에게 미지의 세계로 떠나는 특별한 이정표가 됐다. 미국에서 아시아인으로 살아간다는 것, 작가는 이 같은 고민을 안고 자신의 정체성을 탐구한다. 그 결과 동양과 서양, 과거와 현대로 명확히 정의되지 않은 어느 곳, 고통과 환희가 교차하는 곳으로 끊임없이 여행하는 인생의 내러티브를 완성했다. 제임스 진은 이번 신작을 통해 완벽한 행복이 존재하는 이상향의 세계가 아닌 인간의 내재된 욕망과 다양한 감정이 뜨겁게 대립하는 삶 속 깊은 곳의 현실을 드러낸다.



04

05



#### 드로잉 : 제임스 진의 시작과 끝

1999년부터 2014년까지 제임스 진의 예술 궤도를 보여주는 드로잉 작품을 한자리에 모았다. 드로잉은 제임스 진 작품의 시작점이자 그의 완벽한 테크닉과 서사적 구조가 응집돼 완결된 것이기도 하다. 초기 드로잉 작품에서는 인체를 정밀하게 묘사하기 위한 작가의 노력을 발견할 수 있으며, 2006년 이후부터 숙련된 드로잉 테크닉으로 도시의 일상적 모습을 재구성한다. 2011년 작품에는 동물과 식물, 자연과 인간 등 이질적 요소들을 혼합해 탄생한 기괴한 세계가 담겨있다. 그리고 2014년, 제임스 진의 가장 최근 드로잉에서 우리는 무한한 상상력의 결과물로서 작가만의 도상들이 극도로 치밀하게 표현된 것을 확인할 수 있다. 그는 완벽에 가까운 드로잉 기술을 구사하며 선과 악이 격렬하게 대립하는 상상 이상의 캐릭터들을 창조했다.



04  
제임스 진 전시 전경  
©롯데뮤지엄

05  
Piggyback, 2014, Ballpoint pen on paper,  
29.8×21.6cm ©2019 James Jean

06  
Until The Spring, March 2005, Oil, graphite,  
and digital, 25.8×16.9cm ©DC Entertainment

07  
Aurelians, 2016, Acrylic on canvas,  
152.4×183cm ©2019 James Jean

#### 코믹북 커버 : 이미지의 실험실

제임스 진은 2001년 뉴욕 스쿨 오브 비주얼 아트(SVA) 졸업 직후 DC 코믹스의 만화 <페이블즈 Fables> 시리즈의 커버 아티스트로 일했다. <페이블즈>는 현대 뉴욕을 배경으로 구전 동화와 신화 속 다양한 캐릭터가 등장하는 현대판 판타지 만화이다. 이 작업에서 제임스 진은 빨간 모자 이야기 속 늑대를 비롯해 백설공주, 백마 탄 왕자 등의 캐릭터를 재해석했다. 눈을 사로잡는 표지를 제작하기 위해 새로운 캐릭터를 창조하고 그 이미지와 스토리를 압축하는 시각적 실험은 이후 초현실 내러티브와 환상적 이미지로 대표되는 제임스 진 회화의 근간이 된다.

#### 현실과 환상을 넘나드는 제임스 진의 현재

작가가 본격적으로 회화에 몰두하기 시작한 2008년 작품부터 최근작까지 함께 만나볼 수 있다. 제임스 진의 초기작품들은 다양한 은유와 상징이 얽혀 있는 시적 공간이다. 연약한 소녀와 기괴한 동물, 꽃과 식물이 뒤섞인 그림은 인간의 욕망과 환희, 공포가 공존하는 잔혹한 세상을 보여준다. 2012년부터는 화려한 색채를 사용해 아름답고 신비로운 화면을 창조한다. 꽃이 만발한 정원에서 나비를 잡는 <아우렐리안즈 Aurelians>(2016), 아름다운 숲에서 유니콘을 탄 소녀가 등장하는 <트래블러 Traveler>(2018) 등 최근작에서는 이전과 확연히 구분되는 밝은 색채와 환상적 세계를 엿볼 수 있다. 또한 작가는 동양과 서양의 다양한 도상들과 재료, 표현기법을 혼합하고 동식물을 함께 그림으로써 그의 대표적인 하이브리드 도상을 창조한다. 미국과 아시아의 경계에 머무르는 작가의 분열된 정체성을 반영하는 형상들은 독창적인 은유와 어우러져 신비로우면서도 이질적인 감정을 불러일으킨다. ■■

06



07



# 비주류=다양성! 신인 창작자의 가능성

CJ문화재단 신인 창작자 지원사업 이야기



다름은 물음표를 만들어내고, 물음표는 다양한 아이디어로 재생산되어 수많은 콘텐츠를 생산해낸다. CJ문화재단이 획일적 대중문화에 질문을 던지고 독창적 작업으로 승부하는 신인 창작자에 주목하는 이유다.

## 창작의 원천, 다양성

‘비주류’란 ‘주된 경향에서 벗어난 갈래’ 혹은 ‘소수파’를 가리킨다. ‘주류’라는 단어를 먼저 떠올리고 비교하면 그렇다. 하지만 ‘주류’와 ‘비주류’를 동시에 떠올리며 전체를 생각하는 방식에서 ‘비주류’를 표현한다면 이 단어로 대체할 수 있다. 바로 ‘다양성’이다.

‘다양성’은 문화산업의 존속 및 지속 가능한 발전과 직결된다. 비주류 장르를 활성화시켜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비주류 장르와 주류 문화는 상호 영향을 주고받으며, 때론 경쟁하다가 서로 관계가 전복되기도 한다. 종종 그 짜릿한 전복은 우리 문화를 더 깊고 풍성하게 만드는 중요한 계기가 되곤 한다. 한편으로 ‘다양성’은 새로운 아이디어와 새로운 도전이 결합했을 때 더 활짝 피어난다. 문화산업에서 아이디어는 크리에이티브(Creative)이고, 크리에이티브의 핵심은 ‘사람’이다.

지금까지 얘기한 모든 것을 아우르면 다음과 같은 결론에 이르게 된다. 대중문화산업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해서는 비주류(다양성) 장르 신인(새로운) 창작자(사람)들이 크리에이티브를 발휘할 수 있는 생태계를 조성하는 것이 중요하다.

머리로 이해한다. 말은 쉽다. 문제는 이를 가로막는 현실의 벽이 매우 높다는 점이다. 산업을 돌아가게 만드는 건 결국 이익인데, 비주류 장르는 적어도 당장은 이와 거리가 먼 존재이기 때문이다. 게다가 국내 문화산업이 성숙기에 접어들어 경쟁이 치열해지고 한 작품당 투입되는 자원이 증가하면서, 검증되지 않은 신인보다 성공 경험 및 레퍼런스를 확보하고 있는 기성 창작자를 선호하는 경향은 점점 커지고 있는 실정이다.

02



03



## 문화강국 향한 기업 행보

조금 더 생각해보면 다양성의 씨앗이자 보고인 ‘비주류 장르의 신인 창작자’를 발굴·육성하는 것만큼 문화산업의 중장기적 발전에 주요한 투자는 없다. 어쩌면 산업 내에 있지만 경제적 수익 창출보다 설립자의 철학 및 사회적 가치를 추구하며 사업을 수행할 수 있는 CJ문화재단과 같은 공익법인이 비주류 장르 신인 창작자 지원 사업을 하는 건 속명일지 모른다. CJ문화재단은 ‘문화가 없으면 나라도 없다’는 고(故) 이병철 선대회장의 신념과 ‘기업은 젊은이의 꿈지기가 돼야 한다’는 이재현 회장의 철학이 결합돼 2006년 설립된 재단이다. 또한 CJ그룹은 CJ가 가장 잘 할 수 있고 사회적 관심이 필요한 영역에서 사회공헌활동을 실천한다는 원칙을 갖고 있다. 그에 따라 CJ문화재단은 2010년부터 10년차에 접어든 지금까지 음악, 영화, 공연 등의 다양한 장르에서 젊은 신인 창작자들의 작품 활동 및 시장 진출을 꾸준히 지원해오고 있다.

01

2018년 12월 튜입음악교실  
서울다솜관광고등학교 연말 공연  
현장

02

2017년 리뉴얼 개관한 음악전용  
공연장 ‘CJ아지트 광흥창’

03

지난해 7월 공연된 CJ문화재단  
스테이지업 제작지원 뮤지컬  
<붉은 정원>

10년간 같은 분야 같은 이들을 대상으로 지원사업을 하고 있지만 매해가 새롭고 그 해가 가장 어렵다. 일반적으로 ‘신인 창작자 지원’ 하면 떠올리는 1회성 상금 제공 형태로는 ‘비주류 장르 신인 창작자 발굴·육성’ 성과를 낼 수 없다. 그렇다면 중장기적 관점의 신인 창작자를 위한 협업 및 지원 사업과 이때 고려해야 할 점들엔 어떤 것들이 있을까? 재단의 지원 분야 중에서도 상대적으로 비주류 장르 성격이 더 강한 ‘음악’, ‘공연’ 부분의 사례를 통해 살펴보고자 한다.

## Project 1 뮤지션들의 아지트

### 툰업!

CJ문화재단의 ‘툰업(TUNE UP)’은 재능과 실력을 갖춘 젊은 뮤지션이 음악 시장에 성공적으로 진출할 수 있도록 체계적으로 지원하는 사업이다. 독립 소자본으로 설립한 인디 레이블 혹은 아예 레이블에 소속되지 않은 뮤지션들을 주로 돕고 있으며 발라드, 팝, 펑크, 힙합, EDM, 국악 등 다양한 장르의 음악을 지원하고 있지만 특히 우리나라에선 그 시장이 좁은 편인 록밴드가 많은 수를 차지한다. 초기 툰업의 프로그램은 앨범 제작 지원 및 선배 뮤지션과의 합동 공연 기회를 제공하는 것이었다. 뮤지션의 창작 활동에 가장 기본이 되는 음원 제작과 공연을 통해 관객과의 소통을 돕고자 함이었다. 공연을 준비하며 신인 뮤지션들은 선배들의 내공을 배우고 네트워크를 쌓을 수 있었다. 이것만으로도 뮤지션들의 만족도는 높았지만 재단은 계속해서 현재의 지원이 최적인지 고민했다. 재단의 지원으로 낸 신인 뮤지션의 앨범, 그것이 목표가 아니라 이들의 지속 가능한 음악 활동 및 이를 통한 음악 생태계 다양성 강화에 기여하고 싶었기 때문이다.

그러한 고민과 소통을 바탕으로, CJ문화재단은 선배 뮤지션과의 합동 공연을 넘어 국내외 다양한 음악 페스티벌에 툰업 뮤지션들이 설 수 있는 기회를 늘려갔고 전인권, 신중현 등 전설적인 뮤지션들의 헌정 앨범 프로젝트를 젊은 인디 뮤지션들과 함께 하며 음악계와 대중이 이들을 주목하게 만들었다. 홀(whole)사운드 녹음이 가능한 시설이 없어 어려움을 겪는 밴드 팀들의 이야기는 2017년 CJ아지트 광흥창 리뉴얼 개관 시 홀사운드 녹음이 가능한 최신 시설의 녹음 스튜디오 오픈으로 실현됐고, 자신의 음악을 알리는데 늘 목마른 인디 뮤지션들을 위해 CJ문화재단은 2018년부터 유튜브에 ‘아지트 라이브 세션’ 채널을 운영하고 있다. 다문화 청소년 및 위기 청소년에게 음악 수업을 제공함으로써 자존감, 사회성 등을 고취시키고 음악적 재능을 살려주는 문화 나눔 프로그램 ‘툰업음악교실’에 2012년부터 툰업 뮤지션들이 강사로 참여하고 있다. 자신의 재능으로 더 나은 세상을 만드는데 기여한다는 성취감을 느낄 수 있고 소정의 강사료를 통해 보다 안정적으로 음악 활동을 할 수 있다는 점에서 대내외적으로 긍정적인 평가를 받고 있다. 사업 10년차인 올해 2~3월 진행된 ‘툰업 20기 공모전’에 역대 최대인 501팀이 응모했는데, 결선까지 올라간 쟁쟁한 인디 뮤지션 팀들은 대부분 툰업의 지속적이고 체계적인 지원에 가장 큰 호감을 나타냈다. 즉 대상 등

04  
CJ문화재단이 운영하는 유튜브  
‘아지트 라이브 세션’ 채널

05  
지난해 10월 열린  
그랜드민트페스티벌 무대에 오른  
툰업 19기 뮤지션 ‘아도이’

06  
뮤지컬 신인 창작자를 대상으로  
한 지원사업 ‘스테이지업’ 공모  
포스터



04



05



06

## Project 2

### 뮤지컬 신인 창작자 위한 꿈의 무대

#### 스테이지업!

재단의 또 다른 지원사업 '스테이지업(STAGE UP)'은 뮤지컬 신인 창작자를 대상으로 한다. 뮤지컬 자체는 대중문화 콘텐츠의 메인 스트림이 되었지만, 신인 공연 창작자들의 첫 시작은 중소형 창작 뮤지컬일 수밖에 없기 때문에 비주류 장르 지원 속성을 갖고 있다.

스테이지업의 가장 큰 특징은 신인 작가, 작곡가가 최종적인 뮤지컬 작품이 탄생하기까지 거치는 전 과정에 경험할 수 있다는 점이다. 그것도 초반 극작·작곡뿐 아니라 스태프 구성, 배우 캐스팅, 연습, 무대세트 등 중요 포인트마다 핵심 역할로 참여할 수 있다. 모든 문화예술 영역이 그러하겠으나 특히 종합예술로 불리는 뮤지컬은 창작자 혼자서는 콘텐츠를 만들 수 없다. 산업 전반의 프로세스와 특징을 아는 창작자와 자신만의 세계에서 작업을 하는 창작자의 작품이 시장 진출 가능성에는 분명 차이가 존재한다. 재단은 신인 창작자들이 그 시행착오를 줄일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으며, 전문가 멘토링 제도를 도입해 창작자로서의 역량 향상 및 작품 개발을 도모하는 한편 업계 네트워크 구축도 돕고 있다. 이를 통해 스테이지업은 2018년까지 신인 창작자 96명의 54개 작품 개발을 지원했고 일본까지 진출한 뮤지컬 〈여신님이 보고 계셔〉, 〈풍월주〉를 포함해 〈아랑가〉, 〈판〉 등 총 15개 작품이 정식 상업공연으로 시장에 진출하는 성과를 거뒀다.

한 가지 더 언급하고 싶은 것은 스테이지업의 경우 신인 창작자들이 시장에 안착하기 위해 지속적인 지원이 필요한 점을 고려해 신규 공모 외 기존 선정자에 대한 지원 또한 진행하고 있다는 점이다. 올해부터 스테이지업은 기존 선정작 중 성공 가능성이 높은 미공연작을 다시 발굴해 업계 관계자들 대상 리딩공연 및 트리아아웃 공연을 진행한다. 이를 계기로 보석 같은 창작 뮤지컬 작품들과 좋은 창작자들이 관객과 업계의 주목을 받을 기대한다.

재단은 신인 창작자들이 그 시행착오를  
줄일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으며,  
전문가 멘토링 제도를 도입해 창작자로서의  
역량 향상 및 작품 개발을 도모하는 한편  
업계 네트워크 구축을 돕고 있다

문화는 인류의 삶을 정신적으로 풍요롭게 할 뿐 아니라 일자리 등을 통해 경제적인 가치를 창출한다. 이러한 문화산업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가능케 하는 다양성 확보, 새로운 도전을 위해 비주류 장르 신인 창작자 지원은 꾸준히 이뤄져야 하며, 이때는 보다 입체적이고 세심한 고려가 있어야 함을 다시 한 번 강조한다. ■■

# 1 플랫(b) 십대의 희망 올림(#) 노래



02

## CJ문화재단 'CJ툰업음악교실'

내 첫걸음 앞을 향해 걸어나가  
늦었다고 생각 말고 용기를 가져  
수많은 흔들림 수많은 어려움 내게 와도  
이 굳은 내 마음 번치 말고 뭐든지 할 수 있어  
길을 해냈던 그 아픈 시간들  
되뇌어 외치고 꼭 해내리라

-CJ툰업음악교실 청소년 자작곡 <항해> 가사-

### “마음 속 진심과 이야기를 가사로 쓸 수 있게 됐어요”

지난 4월 30일, 서울북부준법지원센터의 퉁업음악교실 현장. 보호관찰 청소년들이 교실음악회를 앞두고 연습이 한창이다. 몇몇 학생들은 합심해 완성한 자작곡을 선보였다. 자작곡 <항해>의 가사를 짓는 데 어려움이 많았다는 양태준(19세, 가명) 군은 “가사를 써보자는 선생님의 말씀에 처음에는 아는 곡을 그대로 베꼈는데 선생님들이 좋다고 용기를 주셔서 하고 싶은 말을 조금이나마 글로 만들어 볼 수 있었다”고 전했다. 서로의 마음을 모아 가사를 쓰고 연습하며 서툴지만 처음 관객들 앞에서 꺼내놓는 모습에서 음악을 대하는 진지함이 느껴졌다.

툰업음악교실은 CJ문화재단의 뮤지션이 위기 청소년을 대상으로 눈높이 음악교육을 진행하는 선순환 문화나눔 프로그램이다. 2012년 다문화청소년 대안학교 서울다솜관광고등학교를 대상으로 시작했으며, 2014년부터는 법무부와 고봉중학교(서울소년원) 등 청소년 교화시설을 대상으로 운영했다. 또한 2017년부터는 한국메세나협회와 함께 보다 체계적인 교육 프로그램을 기획해 위기 청소년 대상 기관을 확대해 진행 중이다. 현재까지 895명의 청소년이 전문적인 음악수업을 들었으며, 331명의 뮤지션이 강사로 참여하고 있다. 평소 음악에 많은 관심과 흥미를 갖고 있음에도 어려운 가정환경으로 정식 음악 교육을 접할 수 없었던 청소년들은 이번 프로그램에 참여해 개별 악기 연주는 물론 합주 연습 과정을 통해 협동심과 남을 배려하는 사고방식을 길렀다.

보컬파트에 참여중인 유지현 강사는 “사전 면담 때 아이들이 조금 거칠 수 있다는 주변의 우려에 긴장하며 첫 수업을 진행했다. 하지만 몇 개월간 꾸준히 교류하며 학생들과 음악을 통해 소통하다보니 이제는 긍정적인 에너지는 물론 학생들이 정서적으로도 많이 성숙되고 있음을 느낀다”고 소감을 밝혔다. 위기 청소년을 지원하는 프로그램은 개인보다는 사회에 대한 후원으로 이들의 안정적인 사회복귀를 돕고 재범방지를 이끌어냄으로써 지역사회에 기여하는 바가 크다. CJ문화재단은 앞으로도 다양한 문화 분야 교육을 통해 청소년들이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하고 사회범죄 예방이라는 선순환이 지속적으로 이뤄지도록 힘쓸 예정이다. 📌

### CJ툰업음악교실

**who**  
대안학교, 보호관찰소 등  
위기 청소년

**what**  
개별 악기 연주 및 합주  
연습 통해 협동심과 배려의  
사고방식 배양

01-02  
위기 청소년의 비행 방지를 위해  
기획된 CJ툰업음악교실 수업 현장



01

## LG 꿈꾸는 프로듀서

### who

전국 중학교 재학생

### what

창의적 인재육성을 위해  
공연관람 및 공연예술분야에  
특화된 전문가의 찾아가는  
진로 교육 제공

### 01-02

공연 뒤 이어진 질의응답  
시간을 통해 공연예술 직업  
관련 질문을 주고받은  
참가자와 <피노키오> 공연  
관계자들



01

### 03

LG 꿈꾸는 프로듀서가  
선사한 <피노키오>  
공연 현장 속 1천여 명의  
중학생들



02



03

### “순수함과 호기심으로 세상을 바라보세요”

2019년 5월 16일 오후, LG아트센터에서 무용극 <피노키오>를 관람한 1천여 명의 중학생들이 무용수들과 이야기를 나누는 특별한 시간을 가졌다. 공연 전의 시끌벅적함은 간데없고 무대를 향해 반짝이는 눈으로 뜨거운 환호와 박수를 보내는 이들은 바로, 청소년 공연예술 분야 진로 탐색 프로그램인 ‘LG 꿈꾸는 프로듀서’ 참여 학생들이다.

한국메세나협회는 LG연암문화재단과 함께 2016년부터 4년째 ‘LG 꿈꾸는 프로듀서’를 진행하고 있다. 중학생들이 직장체험 활동과 같은 현장학습을 통해 진로교육을 받는 ‘자유학기제’ 시행에 발맞춰 기획한 ‘LG 꿈꾸는 프로듀서’는 창의적 인재육성을 위해 공연예술분야에 특화된 진로 탐색 프로그램이다. 학생들은 공연관람을 통해 문화예술에 대한 흥미도 높이고 본격적인 진로교육도 받을 수 있다. 무엇보다 공연을 통해 새로운 세계를 만난 학생들은 해외 공연 전문가와의 대화를 통해 직업의 세계를 좀 더 생생히 체험하게 된다.

질의응답 세션에는 안무가 야스민 바르디몽(Jasmin Vardimon)을 비롯해, 무대 위에서 피노키오와 제페토를 연기한 무용수 사브리나 가르가노(Sabrina Gargano)와 데이비드 로이드(David Lloyd)까지 참석해 학생들의 궁금증을 해소시켰다. 안무가나 무용수가 되기 위해서는 어떤 공부가 필요한지 궁금해 할 학생들을 위해 무용수 사브리나는 “순수함을 잃지 말고 호기심 어린 눈으로 세상을 바라볼 것”을 강조했다. <피노키오> 같은 공연이 만들어지기까지 소요되는 노력과 시간을 묻는 질문도 이어졌다. 이에 안무가 야스민은 약 20주간 공들인 자신의 제작 과정을 소개하며 학생들의 공연제작에 대한 이해를 도왔다.

공연예술 분야에 새로운 관심을 갖게 된 학생들이 더 구체적인 진로에 대해 고민하고 생각할 수 있도록, 전문 예술교육 강사가 직접 학교를 찾아가 해당 분야의 진로교육을 제공해줄 예정이다. 단순한 직업 설명이 아닌 학생들이 직접 공연이 만들어지는 과정 속에서 자신의 창의력을 발휘해보는 공연 창작 교육을 받게 된다. ‘LG 꿈꾸는 프로듀서’를 통해 꿈에 한 걸음 다가선 학생들이 무대 위에서 기량을 펼치는 어엿한 예술가로 성장하기를 응원한다. ▼▼

# 피노키오가 전하는 무대 위 세계

LG연암문화재단 'LG 꿈꾸는 프로듀서'



01

# 3 열정의 드림, 꿈 담는 그림!

한성자동차 드림그림 '2019 서울리빙디자인페어' 참여

## “가치관을 표현할 줄 아는 작가를 꿈꿔요”

비밀공간을 연상시키는 커튼 문을 열고 들어서면 네온으로 빛나는 단어들이 관객을 반긴다. “설렘을 두려워하라, 불안정함을 받아들여라(Fear Fantasy, Embrace Instability)”

4월 3일부터 7일까지 서울 코엑스에서 열린 ‘2019 서울리빙디자인페어’에 참여한 40인의 드림그림 학생들과 설치미술가 애나한 작가가 함께 선보인 작품이다. 서울리빙디자인페어는 리빙산업을 선도하는 브랜드와 디자이너들이 콘텐츠와 토탈 마케팅 솔루션을 제시하는 한국 리빙 비즈니스 박람회로 한성자동차는 드림그림을 통해 처음 참여했다.

드림그림 학생들은 사전에 진행된 애나한 작가와의 아티스트 멘토링을 통해 ‘꿈’을 주제로 스스로가 그리는 꿈에 대한 느낌과 형상을 단어와 조형언어로 표현했고, 작가를 통해 ‘The Set’이라는 무대공간을 완성했다. 애나한 작가는 주어진 장소와 공간에서 영감을 받아 공간을 재해석하거나 자신의 삶과 내면 세계를 압축해 공간이라는 물리적 장소에 심리적인 접근을 더한 작업으로 메시지를 전한다. 이성과 감성이 공존하는 작가의 공간은 관람객에게 공간적 물성과 존재감을 느끼게 하면서도 자신의 감성을 스스로 공유할 수 있도록 이끌어준다.

작품 설치 공간에 들어서자 스크린에는 그림그림 학생들이 ‘꿈’에 대해 생각하고 느끼는 다양한 감정들을 표현한 단어들 시시각각 바뀌며 노출된다. 관람객들은 가운데 마련된 무대 위에 올라 스스로의 꿈에 대해 생각하며 작품과 일체되는 경험을 한다.

멘토의 조언 덕에 미래 설치미술가를 꿈꾸게 됐다는 류하영 양은 “예전엔 그리기만 무작정 좋아했다면 지금은 가치관을 표현할 줄 아는 작가가 되기 위해 노력하게 된다”며 이번 전시 참여를 통해 미술을 대하는 시각이 한층 넓어졌음을 자랑한다. 또 다른 참가자 김도희 양 역시 “국내 최대 규모의 리빙 박람회를 드림그림을 통해 참여해 새로운 미술 영역에 대한 견문을 넓힐 수 있는 유익한 기회였다”고 소감을 밝혔다.

울프 아우스포링 한성자동차 대표는 “드림그림 학생들이 이번 리빙트렌드페어 참여로 예술적 견문을 넓힐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됐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한성자동차는 학생들의 깊이와 배움이 있는 미술교육을 위해 다양한 프로그램을 제공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의지를 전했다. ▼▼

## 드림그림

### who

예술가의 꿈을 키우는 중·고등학생

### what

디자이너, 아티스트, 학생들이 멘토와 멘티를 이뤄 협업을 통해 작품을 완성하고 전시 및 행사에 출품

### 01-02-03

꿈에 대한 감정들을 단어로 표현해 남다른 감각으로 설치미술을 완성한 드림그림 학생들



02



03

**“아동·청소년들의 무한 상상력을 키울 교구를 만들겠습니다”**

올해로 11년째를 맞은 한화예술더하기는 3년마다 프로그램을 업그레이드 하며 매 시즌 새로운 모습으로 예술교육을 진행하고 있다. 2009년 초등학생을 위한 예술교육으로 시작해 2018년부터는 교육대상을 중학생으로 바꾸는 등 전면 개편을 시행했다.

이번 시즌 프로그램은 진로탐색에 특화된 수업으로 기획했다. 교육 콘텐츠 및 아이디어가 참신하고 중학생들과 원활히 소통할 수 있는 청년 예술가를 강사진으로 구성함은 물론, 한화그룹 임직원 봉사자들도 직군별 직업 및 업무 소개 봉사활동을 병행하는 등 청소년 진로에 도움이 될 수 있는 다양한 장치들이 마련됐다. 특히 올해에는 지역적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한화와 한국메세나협회가 머리를 맞댄 끝에 ‘한화예술더하기 교구·교안 공모전(이하 공모전)’도 시행됐다.

아동·청소년 문화예술교육 콘텐츠 확산 차원인 이 공모전은 지리적, 시간적, 인력적 한계를 넘어 더 많은 청소년들에게 예술교육의 혜택을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공모전에서는 주제 적합성, 활용 가능성, 창의성, 안전성, 예산 합리성 등의 선정 기준을 바탕으로 최종 두 팀이 선정됐다. 최우수상은 미디어아트 교육팀 ‘두번째페이지’에게 돌아갔다. 시나리오 보드게임과 스토리보드게임을 주제로 실제 한편의 영화를 만들기 위해 필요한 과정들을 즐겁게 놀이처럼 경험할 수 있도록 방향을 제시하며, 영화제작은 어렵다는 인식을 허물었다는 평을 받았다. 우수상에는 무용교육팀 ‘아츠컴’이 선정됐다. 무용과 미술 요소를 통합해 만든 50가지 다양한 카드인 ‘Arts Play Card’를 자유롭게 조합해 자신만의 창의적 동작 개발이 가능한 점에서 호평을 받았다. 지난 4월 22일 여의도 63빌딩에서 진행된 시상식을 통해 두 팀에게는 트로피와 함께 상금이 수여됐다. 두번째페이지의 고찬호 대표는 “공모전에서 수상을 하니 ‘우리가 활동하는 영역에서 앞으로도 계속 하나갈 수 있겠구나’ 하는 자신감이 생겼다”며 소감을 전했다.

한편, 이날 공모전 시상식에서는 10여 년간 한화예술더하기가 매년 발전을 거듭할 수 있도록 도움을 준 자문위원들께 존경과 감사의 마음을 전하는 자리도 마련 되었다. 김자꽃스튜디오 이선철 대표, 수원대학교 임승희 교수, 이화여자대학교 정익중 교수 3인에게는 위트 넘치는 감사장과 함께 한화그룹의 세심한 배려가 돋보이는 부상품들이 전달되었다. 🍀

# 지역 곳곳 꽃피는 예술교육

한화예술더하기 '교구·교안 공모전'



01



02



03

**한화예술더하기**

**who**  
예술가의 꿈을 키우는 중학생

**what**  
기업·예술단체·중학교·복지기관이 함께 만들어가는 프로그램

01  
공모전 최우수상을 수상한 미디어아트 교육팀 '두번째페이지'

02  
우수상을 수상한 무용교육팀 '아츠컴'

03  
(우측부터)감사장 전달 후 활짝 웃고있는 한화그룹 최선욱 사장과 감사장을 전달받은 한화예술더하기 자문위원 김자꽃스튜디오 이선철 대표, 수원대학교 임승희 교수, 이화여자대학교 정익중 교수

# 병동에서, 일터에서 즐기는 아름다운 음악

# 5

## 종근당, 오페라 희망이야기 '오페라&콘서트'



01

### 오페라 희망이야기

#### who

환자·환자 가족 및  
병원 임직원들

#### what

유명 오페라 아리아, 뮤지컬  
넘버, 영화 OST 등 잘 알려진  
음악을 바탕으로 환자와 그  
가족들, 병원 임직원들을  
위한 콘서트 진행

#### 01

공연 레퍼토리를 더욱 풍성히  
채운 뮤지컬 배우 김소향

#### 02

환상적인 하모니를 선보인  
팝페라 그룹 DS

#### 03

소프라노 장지애, 테너 진성원의  
아름다운 듀엣 무대

### “환우들이나 가족 모두를 행복하게 만드는 것 같아요”

인천 계양구 세종병원 메디플렉스 로비에서 뮤지컬 배우 김소향이 부르는 ‘Let it go’ 선율이 울려 퍼졌다. 5월 23일 진행된 ‘종근당, 오페라 희망이야기’의 ‘오페라&콘서트’ 무대는 객석에 앉은, 그리고 로비를 둘러싸고 있는 100여 명의 환자와 병원 임직원들을 하나로 만들었다.

2011년에 시작한 ‘종근당, 오페라 희망이야기’는 평소 공연 문화를 접하기 힘든 투병중인 환자와 가족, 문화예술 공연 관람이 어려운 어린이들을 위해 매년 전국 병원과 사회복지시설을 찾아 ‘오페라&콘서트’와 ‘키즈 오페라’ 공연을 진행하고 있다. 특히 로비에서 진행되는 ‘오페라&콘서트’는 유명 오페라 아리아, 뮤지컬 넘버, 영화 OST 등 잘 알려진 음악들을 환자와 그 가족들, 그리고 병원 임직원들에게 선사하는 시간이다.

트리니티필하모닉오케스트라와 함께 진행 중인 ‘오페라&콘서트’는 세종병원 메디플렉스를 시작으로 부산대병원, 신촌세브란스, 강원대병원 등 전국 8개 공연장의 로비를 음악으로 가득 채울 예정이다.

첫 번째 ‘오페라&콘서트’가 진행된 세종병원 경영기획팀의 최인선 씨는 음악 공연에 대한 기대가 남다르다. 세종병원의 로비가 설계 당시부터 음악공연을 염두에 두고 지어졌기 때문이다. “천장도 높이고, 콘서트홀처럼 소리가 잘 울리게 지어져 오페라 같은 음악공연에 최적화 된 병원”이라며 “계양 자체가 문화생활이 쉽지 않고, 또 병동에 계시는 환우들이나 그 가족들은 병원 안에 즐길 거리가 없다보니 오페라&콘서트 같은 음악공연은 짧게나마 모두를 행복하게 만드는 것 같다”고 공연의 소감을 밝혔다.

팝페라 그룹 DS, 소프라노 장지애, 테너 진성원 등 다년간 함께 ‘오페라&콘서트’를 함께해온 아티스트와 함께 2019년에는 뮤지컬 배우 김소향이 합류해 공연의 레퍼토리가 더욱 풍성해졌다. 종근당홀딩스 변무성 차장은 “영화, 광고 등을 통해 관객들에게 잘 알려진 오페라 아리아, 뮤지컬 음악, 칸초네(이탈리아 민요) 등을 중심으로 프로그래밍해 관객들에게 더욱 편안하고 사랑받는 공연으로 거듭 날 것이다”라며 이후 진행되는 공연에 대한 기대감을 보였다. 



02



03

# 이제는, 문화로 인사합니다!

품격있는 문화 선물, 고객을 위한 최고의 접대입니다.



## ‘문화접대비’ 소개

**문화접대비** 기업이 거래처 등에 공연, 전시, 스포츠 등 문화비로 지출한 접대비

**혜택** 기업 ‘접대비 한도액의 20%까지’ 문화접대 지출액을 추가로 비용으로 인정해 법인세 감면 효과

예) 접대비 한도액이 1억 원일 경우 문화접대비로 2천만 원까지 추가 사용 가능

☞ 한도액이 1억 2천만 원까지 늘어나는 효과



## 문화접대를 하면 좋은 이유!

- 1 접대비의 건전한 사용을 통해 기업 이미지 제고에 기여할 수 있습니다.
- 2 앞서가는 문화경영으로 직원들에게 문화예술분야 공연 및 강연 등을 제공하여 직장 생활 만족도를 높일 수 있습니다.
- 3 거래처에 문화체험이라는 색다른 기회를 선사하여 관계를 돈독히 할 수 있습니다.
- 4 문화예술 수요 창출을 통해 문화예술산업 발전에 기여할 수 있습니다.



## ‘문화접대비’ 입력 방법

### ① 세목계정 등록

코드	세목명	구분	사용여부	과목코드	과목명	관계코드	과목명
81301	문화접대비	경비	○	81300	접대비		

☞ 접대비 계정과목에 문화접대비 세목계정 추가등록 [메뉴→세목계정 추가]



### ② 전표입력

일	번호	구분	코드	계정과목	코드
01	00001	차변	81301	문화접대비	00842
01	00001	대변	10300	보통예금	98102

☞ 비용지출 시 추가 생성한 문화접대비 계정으로 전표입력

### ※ 상품권 증정 이벤트

회계관리 프로그램에 문화접대비 사용금액 입력 후 해당 페이지 캡처본을 한국메세나협회 담당자에게 이메일로 전송할 시 문화상품권 증정 이벤트 진행중

문화접대비 관련 문의 Tel. 02-784-0952 E-mail. bom@mecenat.or.kr 한국메세나협회 진보미

주관: 한국메세나협회

후원: 문화체육관광부

한국문화예술위원회



# 지금, 우리 시대의 <sup>1</sup> 아티스트를 만나다

종근당홀딩스 '종근당 예술지상 2019' & <종근당 예술지상 역대 선정작가전>

종근당홀딩스는 5월 3일부터 13일까지 세종문화회관 미술관에서 <종근당 예술지상 역대 선정작가전>을 개최해 2012년부터 2016년까지 선정된 종근당 예술지상 작가 15명의 신작 80여 점을 한 자리에 모아 선보였다. 더불어 2017년부터 2019년까지 선정된 작가 9명의 최근작들을 선보이는 특별 전시존도 함께 설치했다.

'회화의 시간'이라는 주제로 개최된 이번 전시는 종근당 예술지상 역대 선정 작가에 대한 지속적인 지원과 관심에 의미를 두고 작가들의 창작 활동 변화와 최근의 회화 경향을 보여주기 위해 마련됐다.

2012년 선정작가인 윤상윤 작가는 "2013년 참여했던 기획전 이후로 그간의 작품 활동을 다시 한 번 선보이게 돼 의미가 남다르다"며 "특히

같은 분야에서 활동하고 있는 젊은 작가들과 서로의 작품 세계를 공유하고 의견을 나눌 수 있는 좋은 기회"라고 말했다. 아트스페이스 휴 김노암 대표는 "이번 전시는 관객들에게 신선 회화 작가들의 창작 현장을 생생하게 전달하고 이에 공감하는 시간을 만들기 위한 자리"라며 "종근당 예술지상 선정 작가들이 상호 교류를 통해 우리 미술계를 이끌어 나갈 중추적인 커뮤니티로 발전시켜 나가길 바란다"고 말했다. 기획전시예 앞서 종근당홀딩스는 3월 5일 서울 소공동 웨스틴조선호텔에서 '종근당 예술지상 2019 증서 수여식'을 갖고 양유연, 이제, 유현경 등 세 명을 올해의 지원 대상 미술작가로 선정했다. 심사 기준은 만 45세 이하 회화 분야의 작가들을 대상으로 하며, 미술계 전문가들로 구



종근당홀딩스가 2012년부터 2016년까지  
선정한 종근당 예술지상 작가 15명의 신작  
전시회 <종근당 예술지상 역대 선정작가전>  
현장

성된 심사위원들의 두 차례 비공개 심사를 통해 최종 선정했다.  
올해 선발된 작가들은 확고한 주제의식과 독창적인 표현력으로 개성  
넘치는 작품세계를 구축한 점을 높이 평가 받아 최종 작가로 이름을 올  
렸다. 선정된 작가들에게는 1인당 연간 1천만 원의 창작금을 3년간 지  
원하며, 지원 마지막 해에는 기획전 개최 기회를 제공한다.  
올해 선정된 이제 작가는 “종근당 예술지상은 경제적 지원뿐만 아니라  
기획전 개최까지 제공해 국내 젊은 미술작가들이 가장 기대하는 프로  
그램”이라며 “올해부터는 창작에만 집중해 좋은 작품을 만들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종근당홀딩스 우영수 대표는 “올해 선정된 작가들이 앞으로 미술계를  
이끌어갈 대표 작가로 성장하길 바란다”며 “젊고 재능 있는 미술작가들  
이 자신의 역량을 마음껏 펼칠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  
고 강조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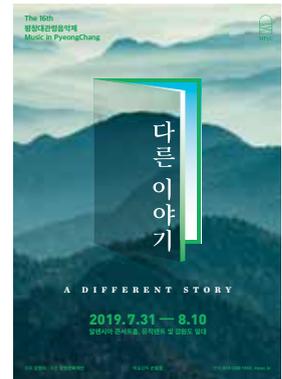
종근당 예술지상은 종근당홀딩스와 한국메세나협회가 젊은 예술가  
들의 창작활동과 전시기회를 지원함으로써 한국 현대미술 발전에 이  
바지하고, 작가들이 작품 활동에만 전념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자는  
이장한 회장의 제안에 따라 2012년 마련됐다. 종근당홀딩스는 한국  
메세나협회와 대안공간 ‘아트스페이스 휴’ 두 단체와 함께 ‘기업과 예  
술의 만남(Art & Business, A&B)’ 결연을 맺고 ‘종근당 예술지상’ 프  
로젝트를 후원하고 있다. 매년 세 명의 지원 작가를 선정해 2012년부  
터 현재까지 총 24명의 작가를 지원했으며, 선정된 작가들에게 3년간  
1인당 연간 1천만 원을 지원하고 지원 마지막 해에는 기획전 개최 기  
회를 제공한다. ▼▼

<종근당 예술지상 역대 선정작가전> 선정작가 증서 수여식 현장



# 한여름 청정고원 위 <sup>2</sup> 클래식 축제

대원문화재단 & 평창대관령음악제



올 여름 개최되는  
평창대관령음악제  
포스터

강원지역을 넘어 대한민국 대표 클래식 음악 축제로 거듭나고 있는 평창대관령음악제(이하 음악제)가 올 여름에도 시원한 클래식 향연 속으로 관객을 초대할 예정이다.

‘다른 이야기(A Different Story)’를 주제로 한 <2019 평창대관령음악제>는 7월 31일 개막공연을 시작으로 8월 10일까지 강원도 평창군 대관령면 알펜시아리조트 내 콘서트홀과 뮤직텐트를 비롯해 강원도 일대에서 펼쳐진다. 2018년 3월 평창대관령음악제의 3대 예술감독으로 취임한 손열음 예술감독은 제15회 평창대관령음악제와 2019 대관령겨울음악제를 성공적으로 이끌며 큰 호평을 받았다.

7월 31일부터 8월 10일, 11일간의 음악회 기간에는 총 12회의 메인콘서트와 10회의 스페셜콘서트, 12회의 찾아가는 음악회가 진행된다. 손열음 예술감독을 비롯해 바이올리니스트 클라라 주미 강, 스페를린 루세브, 폴 황, 가이 브라운슈타인, 닝 핑, 비올리니스트 막심 리자노프, 헝-웨이 황, 첼리스트 올리안 슈테켈, 레오나드 엘센브로이히, 김두민, 송영훈, 에드가 모로, 피아니스트 김선욱, 샤오한 왕 등이 출연한다. 또한, 지난해 최고 평가를 받았던 해외 명문 오케스트라에서 활

약하는 한국 출신 연주자들로 구성된 페스티벌 오케스트라가 다시 평창을 찾는다. 찾아가는 음악회는 고성 DMZ박물관부터 대관령성당까지 강원도만의 정취가 물씬 풍기는 장소에서 진행되는 특별야외 공연으로 강원도 전역이 페스티벌 열기로 가득 찰 예정이다.

음악제의 하이라이트인 메인 콘서트는 ‘다른 이야기(A Different Story)’라는 올해의 주제 하에 각 공연마다 살아있는 스토리텔링을 담아 12회 펼쳐진다.

한편 음악제 첫 해인 2004년부터 17년째 지속적으로 지원하고 있는 대원문화재단은 2019년 음악제의 하이라이트라고 할 수 있는 <메인 콘서트 #6 집으로 두 번째 이야기> 공연을 후원 한다. 예술감독을 맡은 피아니스트 손열음이 프로코피예프의 피아노 협주곡 2번을 협연하고, 러시아 출신으로 베를린 필하모닉, 빈 필하모닉, 로열 콘세르트 허바우 등을 지휘한 세계 정상급 지휘자 드미트리 키타옌코가 평창 페스티벌 오케스트라를 이끌어 차이콥스키 교향곡 5번을 선사할 예정이다. ▶▶



지난해 평창대관령음악제 공연 장면

국내 최대 규모의 국제 아트페어인 '아트부산 2019'가 5월 30일 VIP 프리뷰를 시작으로 6월 2일까지 부산 벡스코에서 진행됐다.

동성코퍼레이션의 후원으로 진행되는 아트부산은 국내외 유명 갤러리들이 참여해 미술 작품 판매가 이뤄지는 현대미술 마켓으로, 8회째를 맞는 올해는 17개국 164개 갤러리가 참여해 상반기 국내 아트페어 중 최대 규모를 자랑했다. 지난해 집계 결과 관람객 수가 6만 명을 기록하며 전년도 대비 1만 명 증가했으며 작품 판매율도 증가 추세에 있어 아시아를 대표하는 국제 아트페어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이번 아트부산에서는 세계 시장에서 활동하는 갤러리의 작품 4,000여 점을 한자리에서 감상할 수 있었다. 국내에서는 국제갤러리, 갤러리현대, PKM 갤러리, 조현화랑, 아라리오갤러리, 가나아트, 리안갤러리 등 한국을 대표하는 대형 화랑들이 대거 참가해 글로벌 미술시장의 최신 동향을 반영한 작품을 선보였다. 또한, 학교재, 갤러리 바톤, 원앤제이 갤러리가 처음으로 참여하며 역대 최고 라인업이라는 평을 받았다.

해외에서는 16개국에서 58개 갤러리가 참가해 국제 아트페어로서의 면모를 과시했다. 상해, 홍콩, 싱가포르의 펄람 갤러리(Pearl Lam Galleries)가 5년째 변함없이 아트부산을 찾았고 전 세계에서 가장 유명한 아트페어인 아트바젤에 참가하는 유럽의 화랑 네 곳이 부산을 찾아 높아진 아트부산의 위상을 확인할 수 있었다. 베를린을 베이스로 세계 주요 아트페어에서 활약하고 있는 페레즈 프로젝트(Perez Projects), 소시에테(Société), 콘니히 갤러리(König Galerie)는 이번 아트부산을 통해 처음 한국 시장에 문을 두드렸다. 또한, 파블로 피카소의 손자 베르나르 피카소의 부인인 알민 레쉬가 운영하는 알민 레쉬(Almine Rech)도 아트부산을 통해 한국 아트페어에 첫 참가해 주목을 받았다.



'아트부산 2018' 행사장 전경

아트부산은 단순히 미술품 거래 시장이 아니라 건강한 미술시장 생태계 조성에 일조하고 부산을 대표하는 미술 축제로 거듭나기 위해 다양한 프로그램을 진행했다. 신진 작가 발굴을 통한 화랑의 순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2015년부터 신진 갤러리 후원 프로그램인 'S-부스'를 운영하며 특별한 형태의 섹션을 제공했다. 특히 한복 디자이너 차이킴, 덴스크 김효진 대표의 덴마크 가구 디자인, 유정우 의사의 클래식 강연, 정재승 카이스트 교수 강연 등 음악, 가구, 인문학 분야까지 아우르는 유명 인사들의 강연에 관람객들의 호평이 쏟아졌다.

한편, 아트부산 개막 한 달 전에는 부산영화의전당과 협력해 아트영화 상영회를 진행했으며 아트페어 기간 중에도 아트영화 상영과 관객과의 대화를 진행해 미술을 사랑하는 배우, 관객들이 만나는 뜻 깊은 시간을 마련했다. ▶▶

## 아트페어를 넘어 <sup>3</sup> 아트 페스티벌로!

동성코퍼레이션 & 아트부산



'아트부산 2019' 메인 포스터



'아트부산 2019'에서 소개된 이탈리아 거장 '투리 시메티'의 작품

# 4 시민에 의한 시민을 위한 애민곡(愛民曲)

세종시문화재단 '여민락 교향시' 발표 & <여민락 콘서트> 개최



세종대왕이 백성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만든 곡 '여민락(與民樂)'. 출범 3년을 맞이한 세종시문화재단은 올해를 '세종시 문화정체성 확립의 해'로 정하고 역점 사업으로 '여민락 교향시'를 발표한다. 한글 창제자이자 문화 콘텐츠 기획자이기도 한 세종대왕의 문화적 성취를 재조명하며 세종시 문화예술의 전국화와 국제화를 실현하겠다는 계획이다.

이를 위해 안익태 작곡상 대상 수상자이자 2019년 영국 왕립음악원이 선정한 '올해의 음악인' 중 한 명인 서울대 이신우 교수가 과업을 맡아 작곡 중이다. 15분 길이의 단약장으로 구성된 '여민락 교향시'는 10월 4일 '세종 축제' 전야제에서 세종솔로이스츠의 연주와 음악평론가 최은규의 해설로 초연될 예정이며, 이어 11월에는 뉴욕 카네기홀에서 해외 초연된다. 또한 2021년에 세종시에 개관할 아트센터에서는 교향시에서 한 단계 더 발전한 '여민락 교향곡'을 만날 수 있다.

세종시문화재단 인병택 대표는 "세종시민이 지닐 수 있는 문화콘텐츠



세종시문화재단 대표 브랜드로 자리 잡은 <여민락 콘서트> 공연 현장

츠를 지속적으로 개발하고 발전시켜 나가는 초석을 마련함은 물론 해외 도시와의 다양한 교류를 통해 세종시의 문화를 국내·외에 체계적으로 확산시켜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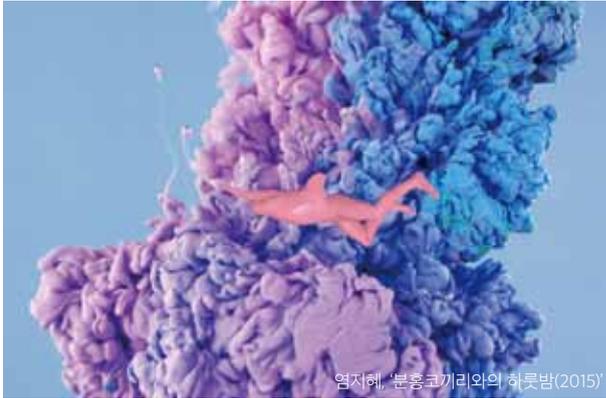
이밖에도 세종시문화재단은 시민들의 일상 속 문화향유를 위해 2017년부터 매월 1회 <여민락 콘서트>를 진행해왔다. 세종시민 약 10만 5천명, 즉 3명 중 1명이 문화행사에 참여했을 정도로 생활문화 활성화와 문화생활 만족도 향상에 힘을 쏟고 있다. 지난 4월 17일에 열린 <여민락 콘서트>에서는 포크밴드 동물원이 '널 사랑하겠어', '변해가네' 등 지난 30년 동안 대중들에게 사랑받은 노래로 60분간 세종시청의 무대를 채웠다. 특히 이번 공연은 <여민락 콘서트> 만족도 조사 가운데 '관객이 공연의 일부가 되는 공연을 희망한다'는 의견을 반영하여 사전에 접수받은 그룹 동물원 관련 사연 가운데 일부를 공연 중에 소개해 큰 호응을 이끌었다.

<여민락 콘서트>는 시즌별로 설정된 장르에 맞춰 매월 다른 주제로 진행되는 해설이 있는 공연이다. 올해에는 음악평론가 김문경(시즌1/ 1~3월)을 시작으로 국악인 김성녀(시즌3/ 7~9월), 국립발레단 예술감독 강수진(시즌4/ 10~12월)이 세종시민들을 만난다. 그룹 동물원은 6월까지 '봄', '인연', '소풍' 등을 주제로 3회에 걸쳐 7080세대의 향수와 감성을 선사할 예정이다. ■■



'여민락 교향시' 작곡 중인 서울대 이신우 교수

글로벌 무대 향한 신진 작가 서포트!  
삼성문화재단, '파리국제예술공동체 2019 입주작가' 선정



삼성문화재단이 차세대 한국 미술을 선도할 작가들의 창작 역량을 강화하고 국제화를 지원하기 위한 파리국제예술공동체 레지던시 2019년 7월 입주 작가로 염지혜를 선정했다.

개인의 이야기와 거대 서사를 아우르며 사회, 문화, 역사에 걸친 다양한 주제를 독창적인 내러티브로 구성해 온 염지혜 작가는 2018년 서울시립미술관 <하늘 땅 사람들>展과 국립현대미술관 <당신은 몰랐던 이야기>展에 참여했고 2018년 대구미술관, 2015년 아트선재센터에서 개인전을 개최했으며, 2016년 송은미술대상 우수상을 수상했다. 뚜렷한 논리를 바탕으로 창작에 임해 온 염 작가는 작업 주제가 세계 미술계의 주요 이슈들과 상통하며, 작업의 국제적 소통 가능성이 높다는 점 등을 높이 평가받았다. 이번 선정을 통해 현대 시각 예술의 거점인 유럽에서 다양한 국적의 작가들과 상호 교류하며 국제적인 감각을 키우고, 외부 전시 및 각종 프로그램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활동 반경을 넓힐 예정이다.

삼성문화재단은 한국 미술의 세계화와 작가들의 창작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1996년부터 2060년까지 프랑스 파리국제예술공동체에 레지던시를 장기임대해 운영하고 있다. 현재까지 총 22명이 입주 작가로 선정됐으며, 특히 올해부터는 왕복 항공료와 활동지원비 외에 별도의 체재비를 신설하여 작가 지원을 강화했다.

금호아트홀, 신촌 시대를 열다  
금호아시아나문화재단 '금호아트홀 연세' 개관



한국의 음악영재와 클래식계를 대표하는 음악가들이 마음껏 음악세계를 펼치도록 장을 마련해온 금호아트홀이 지난 5월 2일, 바이올리니스트 김봄소리와 피아니스트 일리아 라시코프스키의 <Da capo: 처음부터, 새롭게> 공연으로 신촌 시대를 맞이했다.

앞서 4월 25일 '아름다운 목요일' 금호아시아나솔로이스츠의 무대를 마지막으로 광화문 시대를 마감한 금호아트홀은 '금호아트홀 연세'라는 이름으로 연세대학교 백양로에 위치한 실내악 전용 공연장에서 새롭게 출발한다. 본 공연장은 금호아시아나그룹의 문화예술 진흥을 위한 100억 원 기부로 시작돼 2014년 8월 착공, 약 1년여 간 공사기간을 거쳐 2015년 10월 완공됐다.

금호아시아나문화재단은 한층 업그레이드된 탄탄하고 편리한 기반 시설을 바탕으로, 한국 클래식 음악을 보다 풍성하게 할 무대와 지원 사업들을 지속적으로 이어나가며 클래식에 관심 있는 미래의 청중들에게 한걸음 더 다가갈 예정이다.

장애공감 교육·문화 확산에 박차  
삼성화재, 교육부·장애인먼저실천운동본부와 MOU 체결



삼성화재가 4월 19일 교육부, 장애인먼저실천운동본부와 장애공감 교육·문화 확산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장애학생의 성공적인 사회진출을 목표로 하는 이번 업무협약은 장애인에 대한 사회적 인식을 개선하고 장애학생의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4월 19일 세화여자중학교에서 열린 협약식에는 유은혜 교육부 장관, 최영무 삼성화재 사장, 이수성 장애인먼저실천운동본부 이사장 등이 참석했다. 협약식이 끝난 뒤에는 '2019 찾아가는 장애이해교육'의 일환으로 세 기관이 함께 제작한 장애인식 개선 드라마 <오늘도 안녕>을 상영했다.

이번 협약을 통해 지난 10년간 장애 인식개선을 위해 지속해온 사회공헌 활동의 교육적 의미를 인정받은 삼성화재는 앞으로도 청소년 교육을 위한 다양한 사회공헌 활동을 펼칠 예정이다. 특히 기존 청소년 장애이해 드라마와 더불어 유아를 대상으로 한 장애이해 교육영상물을 제작하고, 더불어 장애청소년 음악교육을 지원하는 사회공헌 활동 '뽀꼬 아 뽀꼬'와 '비바챔버 앙상블'도 지속 운영할 계획이다.

행사에 참석한 최영무 삼성화재 사장은 "삼성화재는 장애인이 당당한 사회의 일원이 될 수 있도록 앞으로도 다양한 장애공감 교육·문화 사업을 펼치겠다"고 밝혔다.

도시를 바라보는 아홉 가지 시선  
태광그룹 세화미술관 <팬텀시티 Phantom City 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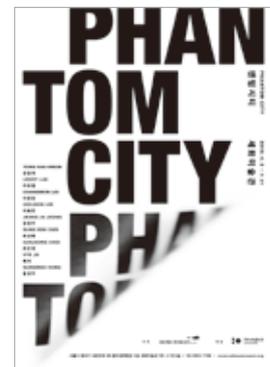
태광그룹 세화미술관이 7월 21일까지 도시를 주제로 한 <팬텀시티 Phantom City 展>을 개최한다. 도심 속의 열린 미술관을 지향하는 세화미술관이 도시를 테마로 진행되는 정기 기획전으로, 도시인의 시각을 유혹하는 빛과 색을 조명하며 동시대 작가들의 현대도시에 대한 다양한 시각을 담은 작품을 선보인다.

최은정 <Tropical City>, 정정주 <Grand Figure>, 헤자 <Hauptbahnhof>, 이창원 <네 도시 : 바그다드, 후쿠시마, 평양, 서울>, 러봇랩 <AVENUE I>, 홍성우 <APT-DV-1>, 최성록 <Scroll Down Journey>, 이희준 <A Shape of Taste No.110>, 권용래 <Vision Light> 등 9팀의 작가가 작품 49점을 선보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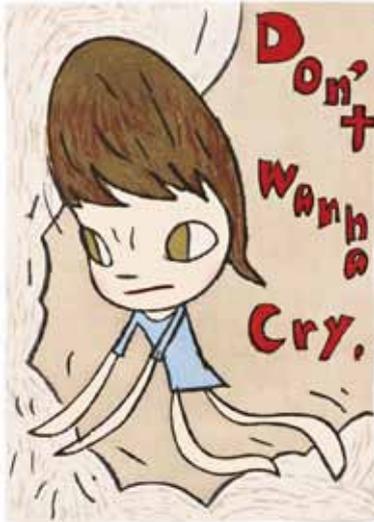
특히 이번 전시는 독일 출신의 이론가 발터 벤야민(Walter Benjamin, 1892~1940)의 미완작 '아케이드 프로젝트(Arcades Project)'에서 영감을 얻어 빛과 색으로 대표되는 도시의 판타스마고리아(Phantasmagoria)를 전면에 내세운다. 도시이미지를 재해석한 참여 작가들의 작품을 통해 환영으로 가득한 현대도시를 읽을 수 있는 단서를 찾는 것이 관전 포인트다.

<팬텀시티 Phantom City 展>

- 일시 2019.4.3~7.21
- 장소 태광그룹 세화미술관



**아시아 팝아트 거장 한 자리에!**  
**유중아트센터 <POP UP ASIA-4인4색 展>**



쿠사마 야요이, 무라카미 다카시, 나라 요시토모, 미스터의 작품을 두루 만날 수 있는 <POP UP ASIA-4인4색 展>이 5월 10일부터 6월 23일까지 유중아트센터 전시장에서 펼쳐진다.

이번 전시는 아시아 팝아트의 계보를 정립시킨 4인의 작업 세계를 조망하는 자리로, 쿠사마 야요이의 <호박>을 중심으로 무라카미 다카시의 플라워 시리즈까지 판화와 드로잉 그리고 오브제 작품 40여 점으로 구성된다. 이들의 작업은 동양의 색채와 반복적인 표현의 오타쿠 문화를 다루는 것이 특징이다.

암울한 어린 시절 트라우마를 예술로 승화시켜 내면세계와 사적 경험을 작품에 담아낸 쿠사마 야요이, 일본 특유의 하위문화와 팝을 접목한 무라카미 다카시, 네오팝을 대표하는 요시모토 나라, 오타쿠 문화와 롤리타 콤플렉스를 깊이 있게 다룬 미스터의 작품까지 한데 모은 <POP UP ASIA-4인4색 展>은 작가 별로 개성 넘치는 작품을 두루 관람할 수 있는 장이자, 아시아 팝아트의 다양성을 이해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다.

**<POP UP ASIA-4인4색 展>**

- 일시 2019.5.10~6.23
- 장소 유중아트센터

**유럽 고(古)음악 대가 '조르디 사발' 앙상블 내한**  
**한화그룹 <한화클래식 2019> 개최**



한화그룹이 주최하는 클래식 공연 브랜드 <한화클래식 2019> 무대가 6월 22일(토), 23일(일, 이상 서울), 25일(화, 대전) 서울 예술의전당 콘서트홀과 대전예술의전당에서 열린다. 올해로 7회째를 맞는 한화클래식은 세계 클래식 음악계의 대가들의 무대를 소개해왔다. 매회 감동을 주는 무대로 언론은 물론 애호가들의 기대와 찬사를 받아 온 한화클래식은 짧은 기간 내 대한민국 대표 클래식 공연으로 자리 잡았다.

올해는 오늘날 가장 재능이 많은 음악인 중 하나로 평가 받는 '조르디 사발'을 초청한다. 시대와 나라를 불문하고 전 세계 민속음악을 아우른 그의 연구는 공연은 물론 자신이 직접 설립한 음반 레이블 '알리아 보스(Alia Vox)'의 디스코그래피를 통해서도 잘 보여주고 있다. 해마다 세계 주요 국가의 바로크 음악을 소개해 온 한화클래식은 조르디 사발과 르 콩세르 데 나시옹, 카펠라 레이알 데 카탈루냐의 공연을 통해 올해도 남다른 감동으로 무대를 채울 예정이다.

**<한화클래식 2019>**

- 일시 2019.6.22~25 \*24일 공연 없음
- 장소 서울 예술의전당(22, 23일), 대전 예술의전당(25일)

여름을 달구는 뜨거운 댄스 향연  
서울예술기획 주최, 댄스 뮤지컬 <번더플로어> 내한



댄스 뮤지컬 <번더플로어>가 6월 25일 울산 공연을 시작으로 7월 21일까지 김해, 서울, 인천, 대구지역에 걸쳐 공연을 펼친다.

1999년 초연된 댄스 뮤지컬 <번더플로어>는 미국, 유럽, 호주 등 50개 국가, 180개 도시 이상에서 공연되며 폭발적인 반응을 불러 일으켰다. 특히 2009년 경제불황 속에서도 브로드웨이 거리에서 연장 공연을 기록하며 흥행 기록을 세운 바 있다.

국내에서는 2006년 처음 공연된 후 올해가 5번째 내한공연이다. 이번 무대는 2012년 내한 당시와 동일한 세계 최고의 공연 프로듀서 '할리 매드카프'와 1980~90년대 세계 라틴댄스와 볼룸댄스 챔피언에 오른 춤의 여왕 '페타 로비'가 맡았다. 예술감독 겸 안무가는 호주의 가장 성공적인 무용수로 꼽히는 '제이슨 길키슨'이 맡아 관객들에게 감동을 전할 예정이다.

**댄스 뮤지컬 <번더플로어>**

- 일시 및 장소 2019.6.25~26(울산 현대예술관)
- 6.28~29(김해 문화의전당)
- 7.2~14(서울 예술의전당)
- 7.17~18(인천문화예술회관)
- 7.20~21(대구오페라하우스)

대륙의 오늘에 고하는 통렬한 풍자  
가현문화재단, 왕칭송 사진전 <The Glorious Life> 개최



중국을 대표하는 현대작가 왕칭송의 개인전 <The Glorious Life>가 6월 1일부터 8월 31일까지 가현문화재단이 운영하는 한미사진미술관에서 개최된다.

1990년대 당시 전통 다큐멘터리 사진에 머물러있던 중국 사진계에 설치미술과 행위예술을 접목시켜 중국현대 사진예술에 큰 반향을 일으킨 왕칭송은 중국사진의 현재를 살피고 있어 핵심이 되는 작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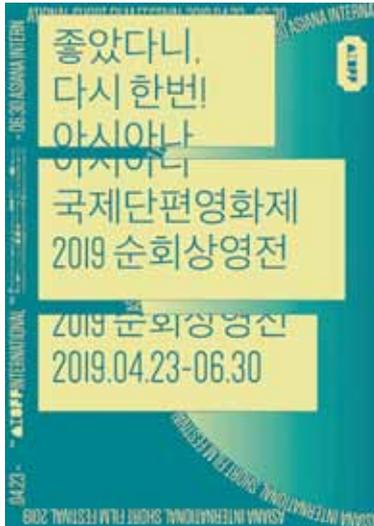
이번 전시에는 회화에서 사진으로 전향한 1990년대 후반 작가 자신의 모습을 디지털로 합성해 작업한 초기 포토몽타주부터 2000년 이후 중국의 사회적 상황을 특유의 해학적 감성으로 연출해 수십 명 혹은 수백 명의 모델을 동원해 촬영한 인물군상 사진과 영상작업까지, 그동안 살펴볼 기회가 없었던 작가의 20여 년 작업과정을 밀도 있게 선보인다.

중국사회를 향한 날카로운 일침을 작가 특유의 재치로 표현한 다양한 작품들은 중국을 넘어 우리의 오늘을 되돌아보게 한다.

**왕칭송 사진전 <The Glorious Life>**

- 일시 2019.6.1~8.31
- 장소 한미사진미술관

**방방곡곡 찾아가는 감동  
아시아나국제단편영화제 순회상영전 개최!**



아시아나국제단편영화제가 순회상영전 '좋았다니, 다시 한번!(이하 순회상영전)'을 개최한다. 올해 12번째로 진행되는 순회상영전은 지난 2018년 아시아나국제단편영화제에서 상영된 작품들 중 화제작과 인기작 15편을 선정해 서울, 대전, 광주, 목포, 속초, 완주, 원주, 진주, 천안, 청주, 포항 등 17개 도시에서 6월 30일까지 무료로 진행한다.

이번 순회상영전에서는 '아시프 화제작전', 'Life is Short!', '발칙한 상상력전' 등 3가지 테마로 총 15편의 단편영화가 상영된다.

순회상영전은 보다 많은 관객에게 국내외 우수 단편영화를 소개하고, 지역 영상문화를 선도해나가는 단체들과 함께 지역 문화의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아시아나국제단편영화제가 기획한 프로그램이다. 시공간적 제약으로 영화제에 참여하지 못한 관객뿐만 아니라 지역 시민들에게 보다 다양한 단편영화를 알리기 위해 마련된 자리인 만큼, 모두 무료로 관람할 수 있다.

**아시아나국제단편영화제 순회상영전**

- 일시 2019.4.23~6.30
- 장소 서울, 대전, 광주, 목포, 속초, 완주, 원주, 진주, 천안, 청주, 포항 등 17개 도시

\* 상영 일정은 홈페이지([www.aissf.or.kr](http://www.aissf.or.kr)) 참조

**신진작가 등용 위한 든든한 서포터 OCI미술관  
<2019 OCI YOUNG CREATIVES 작가 개인전> 개최**



OCI미술관이 5월 16일부터 8월 17일까지 신진작가 발굴·지원 프로그램 '2019 OCI YOUNG CREATIVES'의 선정 작가 릴레이 개인전을 개최한다.

'OCI YOUNG CREATIVES'는 만 35세 이하의 젊은 한국 작가들을 지원하는 OCI미술관의 연례 프로그램이다. 신진작가는 매년 여름 공개모집을 통해 OCI미술관 학예팀과 외부 전문가의 엄중한 심사를 거쳐 선정한다. 선발된 작가 각각에게는 1천만 원의 창작지원금과 이듬해 OCI미술관에서 개인전을 개최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진다. 또한 OCI미술관 큐레이터의 전시 기획, 전문가와의 1:1 비평 매칭, 리플릿 제작 및 온·오프라인을 통한 대외 홍보, '작가와의 대화'를 비롯한 전시 연계 프로그램 등 OCI미술관의 전폭적인 지원을 받는다.

올해 공모를 통해 선정된 기민정, 김라연, 김신애, 김채린, 박신영, 최윤희 등 젊은 작가들은 패기와 재기 넘치는 아이디어를 통해 회화, 설치, 사진, 미디어아트와 같은 다양한 분야에서 현대미술의 면모를 보여줄 예정이다.

**<2019 OCI YOUNG CREATIVES 작가 개인전>**

- 일시 2019.5.16~8.17
- 장소 OCI미술관

## 예술 키움 문화 나눔 '더 기프트' 메트라이프코리아재단 문화예술 사회공헌활동 첫 향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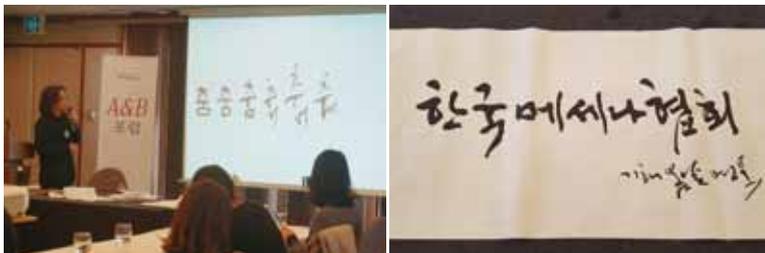
한국메세나협회는 메트라이프코리아재단과 함께 문화예술 사회공헌활동 '더 기프트'를 위해 2억 원의 지원금 전달식을 진행했다. 지난 3월 26일 메트라이프생명 본사에서 진행된 전달식에는 메트라이프생명 송영록 사장, 한국메세나협회 이충관 사무처장, 메트라이프코리아재단 황애경 사무국장 및 관계자들이 참석해 취지를 기념했다.

'더 기프트'는 예술단체 발굴·지원과 문화격차 해소를 위해 메트라이프코리아재단과 한국메세나협회가 기획한 사업으로 장애인, 청년 등 지원 사각지대에 있는 예술단체의 숨은 인재들이 성장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할 계획이다. 2019년 지원단체는 장애인-비장애인 통합 오케스트라 '코리아 아트빌리티 체임버'와 문화예술 사회적기업 '국악밴드 AUX(익스)'다. 메트라이프코리아재단과 한국메세나협회는 공연 기회 제공, 음악 창작활동 지원 등을 통해 단체의 실질적 성장을 도울 계획이다. 또한 지역사회의 문화 격차를 해소를 위한 활동도 병행한다. 특히 문화소외계층 및 저소득가정에게 양질



의 문화예술 공연 관람 기회를 제공해 문화적 욕구를 충족시키고 보다 행복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 캘리그래퍼 강병인의 <멋글씨로 보는 한글의 예술성> '2019 제1차 A&B포럼' 진행



한국메세나협회는 지난 4월 10일 한국프레스센터에서 2019년도 제1차 A&B포럼을 개최했다. 올해 첫 강연자로 '참이슬', 드라마 <미생>과 <엄마가 뽀뽀>, 영화 <정도전> 등의 캘리그래피를 쓴 강병인 작가가 초청됐다.

강병인 작가는 드라마, 책, 광고, 제품 타이틀 등 다양한 대중문화예술 장르에서 활약하는 멋글씨 예술가로 한글문화발전에 대한 기여를 인정받아 문화체육관광부 표창과 대한민국 디자인대상 은탑산업훈장 등 여러 수훈을 쌓았다.

강병인 작가는 이날 포럼에서 캘리그래피 작가로서의 삶과 서예 문화에서 시작된 캘리그래피의 변천사, 입문자들이 캘리그래피를 쉽게 접근하는 방법에 대해 강연했다. 또한 감성적이고 표정이 있는 글씨, 자연을 담은 글씨를 소개하며 한글 글꼴의 다양성과 아름다움을 알렸다.

2007년 발족한 A&B포럼은 협회의 '기업과 예술의 만남(Arts&Business) 사업' 참여 기업과 회원사 등 기업 문화공헌사업 실무 책임자들로 구성된 네트워크 모임으로, 문화예술지원 업무에 도움이 되는 정보를 공유하기 위해 매 분기마다 강연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다. 

## 음악계 큰 스승, 신수정 교수와의 만남 ‘제13회 메세나 CEO 문화포럼’에 뜨거운 관심



한국메세나협회는 지난 5월 15일 조선히텔 오키드룸에서 스승의 날을 맞이해 한국 클래식 음악계 1세대이자 음악계 큰 스승인 서울대학교 신수정 명예교수를 모시고 제13회 메세나 CEO 문화포럼을 개최했다.

1시간가량 진행된 강연을 통해 1세대 피아니스트로서의 삶을 통해 우리나라 클래식 교육의 흐름과 역사를 엿볼 수 있었다. 또한, 신수정 교수 본인은 물론 세계적인 클래식 스타 조성진 역시 기업 문화예술 후원을 통해 많은 지원을 받은 만큼, 이를 통해 음악적 성장에 집중할 수 있는 시간을 보냈다고 전하며 참여한 기업인들에게 꾸준한 메세나 활동을 당부했다.

약 80여 명이 참여한 이날 포럼에서는 케이옥션 사랑나눔 자선경매의 수익금 일부를 음악인재 장학금으로 전달하는 시간도 함께 마련됐다. 지난 4월 초, 가수 헨리가 케이옥션 사랑나눔 자선경매에 기증한 바이올린이 1천만 원에 낙찰됐는데, 해당 수익금 전부를 바이올린 음악인재에게 기증하고 싶다는 뜻을 밝혀 2019년 한국예술종합학교 음악원 기악과에 입학한 김주선 학생에게 장학금을 전달했다.

올해 만 17세의 나이로 한국예술음악학교에 입학한 김주선 학생은 이성주, 변지혜, 성락희를 사사한 인재로서, 2018 티보르바르가 국제콩쿠르 심사위원 특별상, 구르미오 영 국제콩쿠르 3위 등 많은 콩쿠르에서 가능성을 인정받았다. 또한 2013 LG와 함께하는 사랑의 음악학교 장학생, 2014 현대자동차그룹 아트드림콩쿠르 장학생에도 선정된 바 있는 기대주다. ▶▶

June 06

**클래식 나우! <바이올리니스트 임지영 & 비올리스트 매슈 리프먼 연주회>**

2019.6.13 / 금호아트홀 연세



영국을 대표하는 음유시인 피아니스트 크리스천 블랙쇼가 첫 내한 독주회를 연다. 2018/19시즌 영국 위그모어홀의 상주음악가이자 '직접 노래하지 않고 춤추지 않으나, 음악이 흐르고 춤추게 하는 법을 아는 몇 안 되는 피아니스트'라 칭송 받는 블랙쇼는 처음으로 찾는 한국의 금

호아트홀 무대에서 그의 음악성이 밝히 빛날 '모차르트 피아노 소나타 14번'과 '슈만 환상곡 C장조' 그리고 '슈베르트 피아노 소나타 21번'을 연주할 예정이다.

**2019 디토 페스티벌 '용재 오늘 & 제레미 덴크 <환상곡>'**

2019.6.14 / 예술의전당 콘서트홀

한국 젊은 클래식 음악의 아이콘이었던 앙상블 '디토'가 2019년 마지막 시즌을 맞는다. 디토는 크레디아와 비올리스트 리처드 용재 오늘이 '보다 즐거운 클래식, 클래식에서의 공감'을 모토로 시작한 실내악 프로젝트로, 청중과 관계자의 아낌없는 지지를 받으며 성장했다. 음악감독으로 디토를 이끌었던 리처드 용재 오늘은 이제 새로운 거장의 길에 서고자 이번 페스티벌을 마지막으로



잠시 팬들 곁을 떠난다. 특별한 무대인 만큼 용재 오늘은 음악적 멘토이자 미국을 대표하는 피아니스트 제레미 덴크와의 리사이틀 무대를 펼친다.

**연극 <콘센트-동의>**

2019.6.14~7.7 / 명동예술극장

2017년 영국 국립극장(Royal National Theatre)에서 초연된 작품으로, 현재 영국에서 가장 주목받고 있는 극작가 겸 연출가인 니나 레인의 신작이다. 초연 이후 평단의 호평과 뜨거운 논란을 동시에 일으키며 바로 다음 해인 2018년 영국 해롤드 핀터극장(Harold Pinter Theatre)에서 재연을 올렸다. 이번 공연을 통해 처음으로 국내 관객들을 만난다.



**<레이첼 포저 & 계몽시대 오케스트라>**

2019.6.12 / LG아트센터

바로크 바이올린의 여왕으로 오랫동안 찬사를 받고 있는 영국 레이첼 포저가 10년 만에 한국 팬을 찾는다. 이번 공연에서는 레이첼 포저가 객원 리더로 호흡을 맞춰온 계몽시대 오케스트라가 함께한다. 이번 공연에서 선보일 곡은 2017년 발매해 만장일치의 호평을 받은 비발디의 '사계'다. 레이첼 포저는 진부한 레퍼토리가 아닌 여전히 즐길 거 대체로운 명곡임을 일깨워주며 바로크 음악 애호가들을 설레게 할 것이다.



**박성용영재특별상 수상자 음악회 <첼리스트 전예진 독주회>**

2019.6.27 / 금호아트홀 연세

윤이상국제음악콩쿠르의 2018년 박성용영재특별상 수상자, 첼리스트 전예진의 스페셜 콘서트가 열린다. 첼리스트 전예진은 슈만의 아디지오와 알레그로를 시작으로 베토벤의 첼로 소나타 3번을 연주하며 마지막으로 프랑크의 바이올린 소나타를 첼로 버전으로 연주한다.



**함신익과 심포니 송 마스터즈 시리즈 III**

2019.6.30 / 롯데콘서트홀



세계무대에서 왕성한 활동을 하고있는 한국의 바이올리니스트 김다미와 중국의 떠오르는 신예 첼리스트 '지아핑 니'가 함께하는 함신익과 심포니 송의 6월 마스터즈 시리즈다. 하노버 국제 바이올린 콩쿠르 우승자인 바이올리니스트 김다미는 국내의 오케스트라뿐만 아니라 주요 음악 축제에 지속적으로 초청받아 연주하고 있다. 첼리스트 지아핑 니는 싱가포르의 <Straits Times>에 "젊은 첼리스트 지아핑 니는 콘서트의 스타였다. 그의 훌륭한 오케스트라와의 인터플레이는 완벽한 연주를 만들었다"는 높은 찬사를 받았다.

July 07

**클래식 나우! <바이올리니스트 이지윤 독주회>**

2019.7.4 / 금호아트홀 연세



베를린 슈타츠퉁펠레 중신 악장 바이올리니스트 이지윤이 피아니스트 벤킵과 함께 오랜만에 금호 무대에 오른다. 데뷔 음반 '코른골드 & 닐센 협주곡집'으로 <그라모폰>과 <BBC뮤직 매거진>의 '에디터스 초이스'에 선정되며 큰 주목을 받은 이지윤은 오는 독주회에서 스트라빈스키, 야나체크, 프로피에프와 슈트라우스의 작품들을 선보인다.

**전시 <감각의 소용>**

~2019.7.5 / 스페이스K

김병진, 민성훈, 한진 등 세 명의 작가가 참여해 회화, 설치 작업 등 총 20점을 선보이는 전시로, 작가 고유의 감성이 발현된 작품이라는 물리적 실체를 통해 예술가들이 구사하는 감각적



운용법을 흥미롭게 들여다볼 수 있다. 예술이 지적 인식이나 물리적 사태에 대한 표현이기 이전에 감각적 경험이라는 측면에서 그 의미를 상기시키며 감각과 상상력의 지위를 새삼 재고해 볼 수 있는 자리가 될 것이다.



**<로베르트 & 요하네스 : 피아니스트 이진상 독주회>**

2019.7.11 / 금호아트홀 연세

지난해 한국예술종합학교의 교수로 임용되며 아티스트를 넘어 교육자로서의 인생의 또 다른 페이지를 써 내려가기 시작한 피아니스트 이진상이 로베르트 & 요하네스 시리즈로 금호 무대에 오른다. 브람스와 슈만 음악에 특별한 애정을 지닌 그는 멘델스존 무언가를 시작으로 브람스의 소품과 슈만의 다비드 동맹 무곡집을 연주한다.

**컨템포러리S-김주원의 탱고발레**

2019.7.11~7.14 / 세종문화회관 S씨어터

한국 최고의 발레리나로 장르를



뛰어넘는 활발한 활동을 펼치고 있는 김주원과 넘치는 감성과 에너지를 무대에 쏟는 무용가들이 열정적인 탱고 밴드의 연주와 함께 무대를 꾸민다. 여름보다 강렬한 탱고 선율로 꾸며지는 이번 공연은 한 편의 드라마 같은 새로운 구성으로 선보여진다. 한 순간도 시선을 땔 수 없는 긴장감과 무용가들의 매혹적이고도 섬세한 연기와 움직임이 관객들을 사로잡을 예정이다.

**인터내셔널 마스터즈 시리즈 <바이올리니스트 안티에 바이타스 독주회>**

2019.7.18-25 / 금호아트홀 연세

단단한 에너지와 무결점의 기교, 지적인 카리스마를 소유한 바이올리니스트 '안티에 바이타스'가 2주간에 걸쳐 무대를 펼친다. 한계 없는 레퍼토리 와 음악성으로 가장 존경 받는 바이올리니스트로 손꼽히는 안티에 바이타스는 이자이와 바흐의 무반주 바이올린 소나타와 파르티타 전 작품을 연주한다.



**2019 디즈니 픽사 필름 콘서트 페스티벌 <코코 인 콘서트>**

2019.7.24 / 롯데콘서트홀



개봉 첫 주, 관객 수 100만 명을 돌파한 영화 <코코>가 오케스트라와 밴드 라이브 공연이 결합어진 <코코 인 콘서트>로 관객을 찾아온다. 제75회 골든글로브 최우수 애니메이션상, 제90회 아카데미 시상식 장편애니메이션상과 주제가상을 수상한 영화 <코코>의 음악은 대형 스크린 속 영상과 함께 멕시코 특유의 정겨운 음악을 오케스트라 및 밴드가 라이브 연주로 선사할 예정이다.

**2019 디즈니 픽사 필름 콘서트 페스티벌 <픽사 인 콘서트>**

2019.7.25 / 롯데콘서트홀



<픽사 인 콘서트>는 2015년 미국 샌프란시스코에서 초연돼 북미 전역으로 확산되며 인기몰이를 한 데 이어 최근에는 전 세계로 진출해 나이를 초월한 가족, 연인 단위의 관객들에게 큰 사랑을 받고 있다. <토이스토리>, <니모를 찾아서>, <라따뚜이>, <인크레더블 2>, <도리를 찾아서> 등 각 작품의 배경과 캐릭터를 묘사하는 매력적이고 아름다운 음악을 대형 스크린 속 영상과 함께 오케스트라의 라이브로 감상할 수 있다.

**2019 디즈니 픽사 필름 콘서트 페스티벌 <판타지아 라이브>**

2019.7.26 / 롯데콘서트홀



1940년에 제작돼 현재까지 클래식 음악 애니메이션의 대표작으로 많은 사랑을 받고 있는 작품이다. 베토벤, 차이콥스키, 스타라빈스키 등 유명 작품을 디즈니의 친숙한 애니메이션으로 시각화한 유례없는 실험성과 상상력으로, 대중들이 클래식을 보다 쉽게 이해하는데 기여했다. 이번 공연에서는 <판타지아>뿐만 아니라 후속작 <판타지아 2000>의 하이라이트 영상과 함께 오케스트라의 라이브 연주를 통해 클래식 음악의 황홀한 세계로 관객들을 초대한다.

August 08

**인터내셔널 마스터즈 시리즈 <피아니스트 콘스탄틴 리프시츠 독주회>**

2019.8.1 / 금호아트홀 연세



'바흐 지니어스' 피아니스트 콘스탄틴 리프시츠가 다시 한 번 금호아트홀 무대에 돌아온다. 이번 독주회에서 리프시츠는 단 18세의 나이로 음반 발매를 통해 그래미 어워드 후보에 이름을 올렸던 바흐 골드베르크 변주곡을 선보일 예정이다.

**<쇼팽으로 만나는 지브리>**

2019.8.4 / 롯데콘서트홀



낭만시대를 대표하는 작곡가 프 레데릭 쇼팽(F. Chopin)과 스튜디오 지브리의 감성적인 애니메이션 음악이 만난다. 2018년 솔로 버전의 첫 런칭 당시 전석 매진을 기록한 이후 선보이는 앙상블 버전의 <쇼팽으로 만나는 지브리>가 8월 4일 오후 5시 롯데콘서트홀에서 열린다. 쇼팽 스타일로 편곡된 스튜디오 지브리의 곡들과 쇼팽의 오리지널 소품들이 연이어 연주되는 이번 공연은 JTBC <밀회> 대역과 OST를 맡은 피아니스트 송영민의 해설로 감상할 수 있다.

**클래식 나우! <피아니스트 파비아 앙 필러 독주회>**

2019.8.8 / 금호아트홀 연세



2017 ARD 국제 음악 콩쿠르 2위와 청중상을 포함한 4개 분야 특별상까지 휩쓸며 독일의 차세대 피아니스트로 부상한 파비아 앙 필러가 처음 한국 무대에 오른다. 그는 최근 베를린 클래식스 로 발표한 브람스 엘

범의 수륙곡과 더불어 슈만, 베토벤 소나타로 첫 내한 레퍼토리를 구성할 예정이다.

**한중수교 27주년 기념 음악회 <피아니스트 뉴 뉴 & 첼리스트 문태국 연주회>**

2019.8.22 / 금호아트홀 연세



한국과 중국의 수교 27주년을 맞아 이를 기념하는 특별 음악회가 열린다. 올해는 파블로 카잘스 콩쿠르 우승자인 한국의 첼리스트 문태국과 최연소 상하이 음악원 입학, EMI 클래식스 음반 계약 등 빛나는 타이틀의 중국 피아니스트 뉴 뉴가 함께 무대에 올라 양국 음악으로 화합하는 아름다운 순간을 선사한다.

**함신익과 심포니 송 마스터즈 시리즈 IV**

2019.8.29 / 예술의전당 콘서트홀

심포니 송 마스터즈 시리즈 4번째 연주에서는 세계적인 피아니스트이자 작곡가인 '스티븐 허프'가 함신익과 심포



니 송 창단 5주년을 기념해 특별 연주를 가진다. 스티븐 허프는 세계적인 음반상을 휩쓸며 영국 <이코노미스트>의 가장 영향력 있는 지식인 20인에 선정되기도 했다. 스티븐 허프는 오는 8월 서울에 내한해 예술의전당에서 브람스 피아노 협주곡 제2번, 내림 바장조를 연주할 예정이다.

**2019 금호아트홀 상주음악가 피아니스트 박종해 <ROUND 4 : Memorial>**

2019.8.29 / 금호아트홀 연세

피아니스트 박종해가 2019년 금호아트홀 상주음악가 시리즈의 네 번째 라운드, 'Memorial' 무대를 펼친다. 올해 상주음악가 시리즈 중 유일한 실내악 무대인 오는 8월 무

대에는 독일 바이올리니스트 '토비아스 펠트만'과 첼리스트 심준호가 박종해와 함께 피아노 삼중주로 호흡을 맞춘다. 이들은 쇼스타코비치의 피아노 삼중주 1,2번과 차이콥스키 피아노 삼중주 a단조, '어느 위대한 예술가를 추억하며'를 연주한다.



**<에릭 요한슨 사진>展**

~2019.9.15 / 예술의전당 한가람미술관

스웨덴 출신 '상상을 찍는 사진작가' 에릭 요한슨의 환상적인 작품을 한자리에서 만나 볼 수 있는 자리다. 아시아 최초로 소개되는 이번 전시에서 사진작가이자 리터칭 전



문가인 에릭 요한슨은 작품을 통해 현실에서는 불가능한 세계를 한 장의 사진 속에 가능한 세계로 담아낸다. 전 세계 최초 대규모 전시답게 대형 작품부터 다양한 비하인드 신(메이킹 필름), 스케치 그리고 작품을 제작하는 데 사용된 소품들과 설치 작품까지 모두 만나볼 수 있다.

**전시 <하이메 아온, 숨겨진 일곱 가지 사연>**

~2019.11.17 / 대림미술관

세계적으로 영향력 있는 크리에이터 반열에 오르며 오트제의 연금술사로 주목 받고 있는 디자이너 '하이메 아온'의 전시가 국내 최초로 개최된다. 본 전시에서는 디자인, 가구, 회화, 조각, 스케치부터 특별 제작된 대형 설치 작업에 이르는 다양한 작품들과 그에 숨겨진 작품의 스토리를 통해 세상을 보다 흥미롭고 재미있게 바라보는 작가 특유의 시선을 보여준다.



회원사 소개

<b>회장사</b>	경남스틸	동아출판	(재)서울시립교향악단	제우인베스트먼트(주)	현대자동차
일신방직	공간그룹	동일FnG(주)	서울예술기획	제일기획	현대중공업 현대예술관
	광주요	동일방직	서울옥션	조선호텔	현대차 정몽구 재단
<b>부회장사</b>	금영투자협회	(주)두산	(주)성도GL	종이문화재단	(주)호텔롯데
교보생명보험	금호건설	두산건설	(주)세원특수금속	지앤이허어링코리아	(주)호텔롯데 면세점
(주)노루홀딩스	금호고속	두산연강재단	세일ENS	청림출판	호텔신라
동성코퍼레이션	금호미쓰이화학	두산인프라코어	세화예술문화재단	컨슈머타임스	홈플러스
삼산엔지니어링	금호석유화학	두산중공업	소니코리아	케이옥션	환경시설관리주식회사
삼성미술관(삼성문화재단)	금호타이어	로얄앤컴퍼니	(재)송원문화재단	(주)코리아 투모로우	휠라코리아
삼양홀딩스	금호폴리캠	롯데렌터카	(주)스파크인터내셔널	(주)코스모스악기	휴맥스
설원량문화재단	금호피앤비화학	롯데문화재단	신라교역	코카콜라음료	BMW코리아(주)
세아제강	금호홀딩스	롯데백화점	신성씨에스	(주)크레디아프젝트	BNK경남은행
(주)유니드	기자자동차	르노삼성자동차	신한금융투자	(주)클라우드나인마케팅	BNK부산은행
종근당	(주)마케팅큐레이터그룹	(주)마케팅큐레이터그룹	신한은행	태영건설	CJ문화재단
코오롱그룹	나라통상(주)	메리츠화재해상보험	신한카드	퍼시스	GA KOREA Outlet & Resort
크라운-해태제과	(주)나우피플	(주)모나미	아시아나HDT(주)	페르페티 번 벨 아시아퍼시픽	GRE파트너스자산운용(주)
파라다이스문화재단	남이섬교육문화그룹(주)	문화유산국민신탁	아시아나에어포트(주)	포스코ICT	GS칼텍스 예술마루
풍산그룹	네이버문화재단	미디어월	아시아나항공	필룩스	(주)HK
한화갤러리아	네이처스웨일리코리아	법률사무소 C&B	(주)아이피케이	(사)한국FPSB	HSD엔진
현대해상화재보험	(주)노루비케이칼	베이글카페	(주)에스원	한국GM	IBK기업은행
효성	(주)노루오토코팅	보령저약(주)	영앤임성 주식회사	한국경영자총협회	(재)KBS교향악단
	(주)노루페인트	본아이에프(주)	오렌지라이프	한국공항공사	KB국민은행
<b>이사사</b>	녹십자	불보건설기계코리아	오리콤	한국광고주협회	KDB생명
가현문화재단	뉴서울 컨트리클럽	(주)브레드가든	오비맥주 주식회사	한국국제교류재단	KEB하나은행
고려당	뉴스킨 코리아(주)	빌모트 건축사무소 한국지사	오성정보통신	한국남동발전	KT
금호아시아나문화재단	뉴욕제과	삼성SDI	올림푸스한국(주)	한국무역협회	KT&G
디자인하우스	다보성고미술전시관	삼성SDS	와이에스케이미디어	한국서부발전	LG생활건강
사라	(주)다진	삼성물산	우리종합금융	한국수력원자력	LG전자
(주)신세계	대림산업	삼성생명	(주)우진	한국약웨이	LG화학
이건홀딩스	대신산업가스	삼성서울병원	우진건설(주)	한국전력공사	LH
전국경제인연합회	대신증권	삼성엔지니어링	원마운트	한맥도시개발	OCI
한국문화예술위원회	대우건설	삼성전자	월드리츠개발주식회사	한미약품	POSCO
한국예술문화단체총연합회	(주)대창스틸	삼성중공업	원포시스(주)	한미회계법인	SK건설
한성자동차	대한상공회의소	삼성증권	유안타증권	한빛문화재단	SK네트웍스
LG연암문화재단	대한제분	삼성카드	유중아트센터	한세실업	SK에너지
SK SUPEX추구협의회	(주)대한항공	삼성화재해상보험(주)	이건산업	(주)한진	SK증권
사회공헌위원회	더페이스샵코리아	(주)삼양인터내셔널	이상일문화재단	(주)한화	SK텔레콤
	도서출판 '삶과 꿈'	삼익문화재단	인산죽염 주식회사	한화생명	SK해운
<b>회원사</b>	(주)돌실나이	삼일회계법인	인터파크 큐브릿지	한화손해보험	SM삼환기업
가나아트갤러리	동서식품	(주)삼화에프앤에프	인하대학교 문화예술교육원	한화케미칼	TCC동양
강원랜드	동아쏘시오홀딩스	삼익커뮤니케이션즈	재단법인 송강재단	현대백화점	

NEW MEMBERS

로얄앤컴퍼니

1970년 창업 이래 욕실제품 전문기업으로 외길을 걸어온 로얄&컴퍼니는 신개념 시스템 욕실인 로얄 컴바스를 비롯해 수전, 위생 도기, 비데 등을 생산·유통하며 욕실 문화를 이끌어왔다. 본사인 화성센터에 별도의 아트 하우스를 갖춰 예술인을 지원하고 있으며, 서울 강남구 논현동에 복합문화공간 로얄라운지를 오픈하고 쇼룸, 이탈리아 레스토랑, 아트 갤러리를 비롯해 인문학, 인테리어, 예술 등 다양한 주제의 아카데미를 운영 중이다.

(주)돌실나이

우리의 전통 의복을 현대 생활에 어우러지는 감각으로 재현해 우리 옷의 대중화를 실현하고 있는 브랜드다. 1995년 설립된 이래 우리 옷 문화발전을 위해 한 길을 고집하며 25년을 한결같이 달려오고 있다. 그 결과 소비자가 우리 옷을 일상에서 보다 편안하게 즐길 수 있도록 문턱을 낮췄으며, 아름다운 우리 문화 이야기가 담긴 우리 옷을 경제한 실루엣과 다양한 소재로 풀어내는 데 성공했다.

함께하는 메세나  
회비 지원에 감사드립니다

(2019.02 ~ 2019.05)



### GRE파트너스자산운용(주)

국내 최초 상업시설 특화 자산운용사로서 100여 개의 개발 및 컨설팅을 통해 국내 최다 상업시설 개발 및 운영경험, 국내 최초 상업시설 전문 부동산펀드의 운용경험을 보유하고 있다. 전문 역량을 토대로 대구 덕산동 삼성생명 빌딩과 마포구 서교동 삼성화재 빌딩을 인수해 저층부 업무공간을 상업공간으로 개발·운용하는 가치부가펀드 투자 상품을 출시하는 등 성공적인 투자를 이끌어가고 있다.

### 기아자동차

인간중심적이고 환경 친화적인 혁신 기술과 포괄적 서비스를 기반으로 최상의 이동성을 구현하는 기업이다. 일상을 더욱 편리하고 즐겁게 영위할 수 있는 새로운 공간을 제공하는 비전을 수립하고 삶의 동반자를 표방하며 대한민국 자동차 산업을 이끌어가는 중이다. 무엇보다 이동을 위한 수단을 넘어 삶의 공간으로 진화한 자동차의 새로운 가치에 부합하는 제품과 서비스를 실현하며 미래 기술을 구현해나간다.

### (주)코스모스악기

1972년에 설립 된 악기 판매업체로 세계적인 악기업계 전문지 'Music Trade'가 선정한 세계 유명악기 판매사에 랭크된 바 있다. 현재 서초동, 낙원악기 상가, 부산, 대구, 광주 및 대전에 매장을 운영하고 있으며, 전 세계 100여 유명 악기회사로부터 12,000여 종의 악기와 부품을 직수입해 공급한다. 한국 악기업계의 선구자적 책임과 사명감으로 제2의 도약을 위해 힘찬 발걸음을 내딛고 있다.

따뜻한 뉴스가  
부쩍 반가워지는 건

새 직장동료가  
유난히 기다려지는 건

맑은 공기가  
유독 그리워지는 건

세상엔 아직 피로 말고도  
풀려야 할 게 많기 때문이겠죠

풀 것 많은 세상을 살아가는 당신이  
피로에 먼저 지치지 않도록

**시작은  
피로회복부터**

**박카스**

